

# 은양·아산의 문화재

은양문화원





## 發刊辭



여기 꺾이면 돌아나고 밝히면 솟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욕되지 않게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들을 한데 모아 문화재 총람이란 이름으로 한권의 책을 자랑스럽게 내놓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국제화 시대라는 낯설지 않는 명제가 자연스런 흐름으로 우리들 앞에 우뚝 다가와서 있습니다. 흔히들 국제화 시대로 이르는 길은 주체성과 분별력을 상실한 국적없는 국제화가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내고장의 문화부터 갖고 닦아 그 터전위에서 우리들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우리고장은 청백리 맹사성과 충무공 이순신의 얼이 넘쳐나는 문무(文武) 관련유적과 빼어난 자연이 어우러진 천혜의 고장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문화의 흔적들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책이 우리고장 온양, 아산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익히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을 마다 앓으시고 수고해 주신 박노을 전 원장님, 자료조사에 애쓰신 관계자님과 원고 정리 및 발간에 도움을 주신 시청 관광과 김영록계장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최상의 경의를 표합니다.

2006. 12

온양문화원장 김 시 겸





## 祝刊辭



우리 아산시는 선사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주요 문화재의 보고이자 문화의 전파경로였습니다. 남성리 출토 검파형 동기 등 수준 높은 청동기 유물과 고려시대 건축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맹사성 고택, 외암마을과 현충사 등 우리 민족사의 가장 중요한 문화재들이 우리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단순히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민족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로서 우리의 문화적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고 온전하게 후대에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지역 문화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자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온양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아산의 문화재"는 우리시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알고, 가꾸고,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후대 연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민족의 삶의 궤적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힘써주신 김시겸 온양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아 산 시 장 강 희 복

## 祝刊辭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재 현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한 「아산의 문화재」 책자발간을 21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산시는 찬란한 문화의 중심지이고 충절의 고장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특히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재를 종합 정리하여 보급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화재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산의 문화재」 책자가 아산의 문화재를 홍보하고 계도하는데 유익한 길잡이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책자의 발간을 위해 애써오신 온양문화원 김시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온양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아산시의회 의장 이 기 원



## 編輯後記



흔히 역사는 회고하는 예언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문화는 사치도 장식도 아닌 우리 생활의 전부라고 말한다.

우리 선조들이 풍성한 문화의 텃밭에서 땀흘려 갈고 닦아 물려준 문화유산은 우리민족의 혼과 멋과 철학이 농익은 살아있는 역사로서 영원한 세기에 걸쳐 이어져 나갈 소중한 자산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떳떳하고 성실하게 전승 보존하여야 할 으뜸 책무이다. 이번에 온양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온양아산의 문화재 자료집 발간작업을 즈음하여 자료수집과 편집 업무의 요청을 받고 겁 없이 뛰어든 소행이 만용으로 빚어질까봐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흠이나 오류가 발생하지나 않을지 두려움마저 든다.

모쪼록 이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온양아산의 향풍과 선비문화가 시대와 시간의 간격을 메워주는 가교가 되어서 우리고장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값진 지침서가 되어 온양아산 문화유산 지킴이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으로 이 책 발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베풀어 주신 아산시청 문화관광과 김영록 계장님을 비롯한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 12

온양아산향토사연구소 박 노 을





## 문화재 총괄

| 계  | 국가지정문화재 |    |    |    |        | 도지정 문화재 |    |     |    |      | 문화재 자료 |    |     |
|----|---------|----|----|----|--------|---------|----|-----|----|------|--------|----|-----|
|    | 소계      | 국보 | 보물 | 사적 | 중요민속자료 | 소계      | 유형 | 기념물 | 무형 | 민속자료 | 소계     | 유형 | 기념물 |
| 51 | 14      | 1  | 4  | 3  | 6      | 14      | 3  | 7   | 1  | 3    | 23     | 3  | 3   |

## 국가지정 문화재

| 종별          | 지정번호 | 명 칭                    | 소재지                   | 지정일        | 소유자/관리자           | 비고   |
|-------------|------|------------------------|-----------------------|------------|-------------------|------|
| 국 보         | 76   | 이충무공난중일기<br>부서간첩, 임진장초 | 아산시 염치읍<br>백암리 100    | 62. 12. 20 | 현충사관리소            |      |
| 보 물         | 326  | 이충무공 유물                | 아산시 염치읍<br>백암리 100    | 62. 1. 20  | 현충사관리소            |      |
|             | 536  | 아산 평촌리<br>석조약사여래입상     | 아산시 송악면<br>평촌리 산2-4   | 71. 7. 07  | 아산시/용담사<br>주지 정백하 |      |
|             | 537  | 온양 읍내리 당간지주            | 구 온양시 읍내동<br>255-2    | 71. 7. 07  | 아산시               |      |
|             | 639  | 기사계첩                   | 아산시 배방면<br>세교리 18     | 78. 12. 07 | 홍기준               |      |
| 사 적         | 109  | 아산 맹씨행단                | 아산시 배방면 중리<br>300-2필지 | 63. 1. 21. | 신창맹씨종중            |      |
|             | 112  | 이충무공묘                  | 아산시 음봉면<br>섬거리 산 2-1  | 63. 1. 21  | 현충사관리소            |      |
|             | 155  | 아산 이충무공 유허             | 아산시 염치읍<br>백암리 100    | 67. 3. 18  | 현충사 관리소           |      |
| 중요민속<br>자 료 | 194  | 아산 성준경 가옥              | 아산시 송악면<br>외암리 88     | 84. 12. 24 | 성하현               | 서울거주 |



| 종별          | 지정<br>번호 | 명 칭         | 소 재 지              | 지정일        | 소유자/관리자 | 비고   |
|-------------|----------|-------------|--------------------|------------|---------|------|
| 중요민속<br>자 료 | 195      | 아산외암리 참판택   | 아산시 송악면<br>외암리 88  | 84. 12. 24 | 이득선     |      |
|             | 196      |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 아산시 둔포면<br>신항리 143 | 84. 12. 24 | 윤상구의 1인 | 서울거주 |
|             | 225      | 전세맹고불 유물    | 아산시 배방면<br>중리 300  | 90. 10. 10 | 신창맹씨종중  |      |
|             | 233      | 아산 건재고택     | 아산시 송악면<br>외암리 196 | 98. 1. 5   | 이준경     |      |
|             | 236      | 아산 외암마을     | 아산시 송악면<br>외암리 일원  | 00. 1. 7   | 외암마을보존회 |      |

## 도지정 문화재

| 종별         | 지정<br>번호 | 명 칭               | 소 재 지                      | 지정일        | 소유자/관리자         | 비고  |
|------------|----------|-------------------|----------------------------|------------|-----------------|-----|
| 유 형<br>문화재 | 16       | 온주아문 및 동헌         | 구 온양시 읍내리<br>370           | 73. 12. 24 | 아산시             |     |
|            | 17       | 여민루               | 아산시 영인면<br>아산리 426         | 73. 12. 24 | 아산시             |     |
|            | 167      | 세심사불설대보<br>부모은중경판 | 아산시 염치읍<br>산양리 221         | 20. 7. 30  | 세심사<br>(주지 윤경자) |     |
| 기념물        | 13-1     | 김옥균선생 유허          | 아산시 영인면<br>아산리 143         | 76. 12. 6  | 안동김씨 종중         |     |
|            | 21       | 아산공세 꽃고지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br>193-1외 33필지 | 76. 7. 3   | 아산시             | 사유지 |



| 종별         | 지정<br>번호 | 명 칭       | 소 재 지                    | 지정일        | 소유자/관리자              | 비고   |
|------------|----------|-----------|--------------------------|------------|----------------------|------|
| 기념물        | 67       | 배방산성      | 아산시 배방면 신흥리<br>산 19의 1필지 | 88. 8. 30  | 아산시                  | 사유지  |
|            | 113      | 신창향교      | 아산시 신창면<br>읍내리 320-3     | 97. 12. 23 | 신창향교<br>(전교 김영재)     |      |
|            | 114      | 아산향교      | 아산시 영인면<br>아산리 643       | 97. 12. 23 | 아산향교<br>(전교 정운진)     |      |
|            | 115      | 온양향교      | 구 온양시 읍내동<br>209         | 97. 12. 23 | 온양향교<br>(전교 권태신)     |      |
|            | 144      | 아산 공세리 성당 | 아산시 인주면<br>공세리 194-1     | 98. 7. 25  | 공세리 천주교회<br>(신부 오남한) |      |
| 유 형<br>문화재 | 11       | 아산 연엽주    | 아산시 송악면<br>외암리 88        | 90. 12. 31 | 최황규                  |      |
| 민 속<br>자 료 | 12       | 윤일선 가옥    | 아산시 둔포면<br>신항리 142       | 86. 11. 19 | 윤태구                  | 서울거주 |
|            | 13       | 윤제형 가옥    | 아산시 둔포면<br>신항리 121       | 86. 11. 19 | 심경화                  | 서울거주 |
|            | 15       | 윤승구 가옥    | 아산시 둔포면<br>신항리 123-1     | 90. 12. 31 | 윤승구                  | 서울거주 |

## 문화재 자료

| 종별         | 지정<br>번호 | 명 칭    | 소 재 지               | 지정일       | 소유자/관리자 | 비고 |
|------------|----------|--------|---------------------|-----------|---------|----|
| 문화재<br>자 료 | 227      | 온천리 석불 | 구 온양시 온천동<br>242-10 | 84. 5. 17 | 온양관광호텔  |    |
|            | 228      | 영괴대    | 구 온양시 온천동<br>242-10 | 84. 5. 17 | 온양관광호텔  |    |



| 종별         | 지정<br>번호 | 명 칭        | 소 재 지                 | 지정일       | 소유자/관리자          | 비고 |
|------------|----------|------------|-----------------------|-----------|------------------|----|
| 문화재<br>자 료 | 229      | 신정비        | 구 온양시 온천동<br>242-10   | 84. 5. 17 | 온양관광호텔           |    |
|            | 230      | 이충무공 사적비   | 구 온양시 온천동<br>69-10    | 84. 5. 17 | 아산시              |    |
|            | 231      | 세심사 다층탑    | 아산시 염치읍<br>산양리 220    | 84. 5. 17 | 세심사<br>(주지 윤경자)  |    |
|            | 232      | 관음사 석탑     | 아산시 영인면<br>아산리 산 57   | 84. 5. 17 | 관음사<br>(주지 철연스님) |    |
|            | 233      | 관음사 석조여래불상 | 아산시 영인면<br>아산리 산 57   | 84. 5. 17 | 관음사<br>(주지 철연스님) |    |
|            | 234      | 영인 신현리 미륵불 | 아산시 영인면<br>신현리 산 42   | 84. 5. 17 | 아산시              |    |
|            | 235      | 인취사 석탑     | 아산시 신창면<br>읍내리 84     | 84. 5. 17 | 인취사<br>(주지 신동희)  |    |
|            | 236      | 신창 척화비     | 아산시 신창면<br>읍내리 280-1  | 84. 5. 17 | 아산시              |    |
|            | 237      | 김육 비       | 아산시 신창면<br>읍내리 310-1  | 84. 5. 17 | 아산시              |    |
|            | 238      | 삼도해운 판관비   | 아산시 인주면<br>공세리 193-16 | 84. 5. 17 | 아산시              |    |
|            | 239      | 영인 오층석탑    | 아산시 영인면<br>아산리 613    | 84. 5. 17 | 아산시              |    |
|            | 240      | 영인석불       | 아산리 영인면<br>아산리 613    | 84. 5. 17 | 아산시              |    |
|            | 310      | 홍가신선생 교지   | 구 온양시 온천동<br>1-90     | 89. 4. 20 | 남양홍씨종중           |    |
|            | 311      | 창녕성씨 종중문서  | 아산시 배방면<br>중리         | 89. 4. 20 | 창녕성씨종중           |    |





| 종별         | 지정<br>번호 | 명 칭                | 소 재 지                | 지정일        | 소유자/관리자           | 비고  |
|------------|----------|--------------------|----------------------|------------|-------------------|-----|
| 문화재<br>자 료 | 323      | 봉곡사 대웅전<br>및 고방    | 아산시 송악면<br>유곡리 595   | 93. 7. 20  | 봉곡사<br>(주지 김봉점)   |     |
|            | 333      | 외암선생문집판각           | 아산시 송악면<br>외암리 196   | 94. 11. 4  | 예안이씨종중            |     |
|            | 243      | 형제송                | 아산시 인주면<br>해암리 산63-1 | 84. 5. 17  | 홍갑신               |     |
|            | 244      | 신창학성               | 아산시 시창면<br>읍내리 산66   | 84. 5. 17  | 아산시               | 사유지 |
|            | 314      | 온양 어의정             | 구 온양시 온천동<br>578     | 89. 12. 29 | 아산시               |     |
|            | 395      | 아산인취사석조<br>아미타삼존불상 | 아산시 신창면<br>읍내리 84    | 2005.10.31 | 대한불교조계종<br>인취사 주지 |     |

## 문화재 자료

| 종별         | 지정<br>번호 | 명 칭 | 소 재 지              | 지정일       | 소유자/관리자         | 비고 |
|------------|----------|-----|--------------------|-----------|-----------------|----|
| 전 통<br>사 찰 | 51       | 봉곡사 | 아산시 송악면<br>유곡리 595 | 88. 6. 18 | 봉곡사<br>(주지 진목)  |    |
|            | 52       | 인취사 | 아산시 신창면<br>읍내리 84  | 88. 6. 18 | 인취사<br>(주지 구전)  |    |
|            | 61       | 세심사 | 아산시 염티면<br>산양리 221 | 88. 9. 20 | 세심사<br>(주지 성엽)  |    |
|            | 76       | 오봉암 | 구 온양시 장촌동<br>50    | 95 .9. 12 | 오봉암<br>(주지 백운영) |    |
|            | 82       | 용담사 | 송악면 평촌리<br>산 2-11  | 2004.8.16 | 용담사<br>(주지 정백하) |    |



# 목 차Contents

## 국가지정 문화재

- 이충무공난중일기 부서간첩, 임진장초 ..... 15
- 이충무공 유물 ..... 18
-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 21
- 온양 읍내리 당간지주 ..... 24
- 기사계첩 ..... 26
- 아산 맹씨행단 ..... 29
- 이충무공묘 ..... 31
- 아산 이충무공 유허 ..... 33
- 아산 성준경 가옥 ..... 35
- 아산 외암리 참판택 ..... 38
-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 41
- 전세맹고불 유물 ..... 43
- 아산 건재고택 ..... 46
- 아산 외암마을 ..... 50

## 도지정 문화재

- 온주아문 및 동헌 ..... 55
- 여민루 ..... 57
- 세심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 59
- 김옥균선생 유허 ..... 62
- 아산공세 꽃고지 ..... 64
- 배방산성 ..... 66
- 신창향교 ..... 68
- 아산향교 ..... 71
- 온양향교 ..... 74
- 아산공세리성당 ..... 77
- 아산 연엽주 ..... 80
- 윤일선 가옥 ..... 82
- 윤제형 가옥 ..... 84
- 윤승구 가옥 ..... 86



## 문화재 자료

|                    |     |
|--------------------|-----|
| 온천리 석불 .....       | 91  |
| 영괴대비 .....         | 93  |
| 주필신정비 .....        | 95  |
| 이충무공 사적비 .....     | 97  |
| 세심사 다층탑 .....      | 99  |
| 관음사 석탑 .....       | 102 |
| 관음사 석조여래불상 .....   | 105 |
| 영인 신현리 미륵불 .....   | 108 |
| 인취사 석탑 .....       | 111 |
| 신창 척화비 .....       | 113 |
| 김 육 비 .....        | 115 |
| 삼도해운 판관비 .....     | 117 |
| 영인 오층석탑 .....      | 121 |
| 영인석불 .....         | 124 |
| 홍가신선생 교지 .....     | 128 |
| 창령성씨 종중문서 .....    | 129 |
| 봉곡사 대웅전 및 고방 ..... | 131 |
| 외암선생문집판각 .....     | 135 |
| 형제송 .....          | 137 |
| 신창학성 .....         | 138 |
| 온양 어의정 .....       | 142 |
| 인취사 삼존불상 .....     | 144 |

## 전통사찰

|           |     |
|-----------|-----|
| 봉곡사 ..... | 149 |
| 인취사 ..... | 152 |
| 세심사 ..... | 155 |
| 오봉암 ..... | 157 |
| 용담사 ..... | 159 |

# 국가지정 문화재

국      보  
보      물  
사      적

중요민속자료









## 이충무공 난중일기 부 서간첩 임진장초 (李忠武公 亂中日記 附 書簡帖 壬辰壯草)

국보 제 76호



- ◆ 지정년월일 : 1962년 12월 20일
- ◆ 위치 :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
- ◆ 수량 : 합 9책
- ◆ 시대 : 조선시대 선조

아산 현충사내 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난중일기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이 임진왜란(1592~1598) 7년 동안에 싸움터에서 손수 쓴 진중일기(陣中日記)의 이름이다. 난중일기란 본시 특별한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정조 때에 이충무공 전서를 편찬하면서 진중에서 쓴 이 일기를 편찬자들이 편의상 "난중일기"라고 하여 이충무공전서 권5~권8에 걸쳐 수록한 후 난중일기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난중일기의 특색은 첫째, 계속해서 7년 동안이나 집필하였으므로 분량이 많고 둘째, 생사를 걸고 싸우는 진중의 집필이며 셋째, 일기의 내용으로 보아 공의 엄격한 성품과 진중생활, 그리고 당시의 국정에 대한 솔직한 감회, 전쟁 후의 비망록과 군사에 대한 비밀계획, 가족·친지·부하·장졸(將卒)·내외요인들과 내왕한 내용, 부하들에 대한 상벌, 정사에 관한 서신 교환 등 광범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임진왜란 전체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사료가 되며 넷째, 그 문장



이 비범하고 간결하면서도 진실하며 충·효·신·의가 간곡하게 담긴 내용을 정성을 다하여 쓴 충무공의 고백인 점, 다섯째, 공이 손수 쓴 글씨인 만큼 필적에 예술적 가치가 있고 여섯째, 공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고 정의가 있었으며 민중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일기는 난중 7년동안 공의 피와 눈물이 헤아릴 수 없이 배인 것이며 설새없이 빗발치는 총탄과 화살 속에서 왜적과 싸우면서 틈틈이 계속하여 집필한 것으로 공의 후손들이 대대로 보존하여 390여년을 간직해 온 것이다.

●난중일기(亂中日記) : 7책은 亂이 일어난 다음 달부터 시작되어 중간에 약간 끊어



진 데가 있으나 공이 전사한 전달까지의 군중일기(軍中日記)이고 후에 충무공전서에 전해진 난중일기의 친필초본이다. 그런데 전서(全書)의 난중일기와 비교해 보면 초본(草本)에서 전서(全書)에 생략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충무공의 시취(詩趣)가 넘치는 일상생활과 료우(僚友)·친족과의 왕래, 수군통제에 관한 비책 등 중요한 기사가 있다.

●임진장초(壬辰壯草) : 표지에는 임진장초라는 제목을 붙이고 오른쪽 위에는 만역(萬曆) 20년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면에는 여러 곳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인(全羅左道水軍節度使印)이라는 주인(朱印)이 찍혀 있다. 이것은 공이 보고하고 군무에 대하여 지령을 청한 계달(啓達)의 글을 필록(筆錄)시킨 담록(膽錄)이다. 이것은 전서에 수록한 것보다 훨씬 상세한 곳이 많아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간첩(簡帖) : 충무공의 서간집으로 가족 친지들에게 쓴 내용으로 12매가 있다.

| 구 분      | 표 제         | 장수  | 크 기    |        | 내 용                                           |
|----------|-------------|-----|--------|--------|-----------------------------------------------|
|          |             |     | 세로     | 가로     |                                               |
| 국 보 제76호 | 壬辰日記 (1592) | 27매 | 25.7cm | 34.5cm | 壬辰 5.1~4, 5.29~6.10, 8.24                     |
|          | 癸巳日記 (1593) | 30  | 24.7   | 27.5   | 癸巳 2.1~3.22, 5.1~9.15                         |
|          | 甲午日記 (1594) | 52  | 26.5   | 29.0   | 甲午 1.1~11.28                                  |
|          | 丙申日記 (1596) | 41  | 25.5   | 30.0   | 丙申 1.1~10.11                                  |
|          | 丁酉日記 (1597) | 27  | 25.0   | 28.0   | 丁酉 4.1~10.8                                   |
|          | 첫장에 丁酉라 적었음 | 20  | 23.5   | 24.2   | 丁酉 8.1~戊戌 1.4, 丁酉日記과 같이 중복이 되었고 내용이 약간 차이 있음. |
|          | 戊戌日記 (1598) | 8   | 23.0   | 27.0   | 戊戌 9.15~10.7, 11.8~17                         |
|          | 書 簡 帖       | 13  | 39.9   | 24.5   |                                               |
|          | 壬辰狀草        | 184 | 46.0   | 33.5   |                                               |
| 非指定      | 再造藩도邦志抄     | 39  | 29.0   | 22.1   |                                               |

## 이 충무공 유물 (李 忠武公 遺物)

보물 제326호



-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 위치 :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
- ◆ 수 량 : 장검(長劍) 2자루, 옥로(玉鷺) 1구,  
요대(腰帶) 1구, 도배구대(桃盃俱臺) 1쌍
- ◆ 시대 : 조선시대 선조

아산 현충사내 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유물이다.

● 장검(長劍) : 손잡이에는 남색천을 십자로 감았고, 칼 끝에는 당초문(唐草文)이 새겨져 있으며 칼 등에는 흠이 파져 있다. 손잡이 부분도 매우 길어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약간 휘어져 있다. 칼집은 끝부분에 은으로 된 장식이 붙어 있으며 칼을 찌를 수 있는 끈이 붙어 있다. 특히 두 칼에는 다음과 같은 공의 친필 검명(劍銘)이 새겨져 있다.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

라 하였으니 이 뜻은 "석자되는 칼로 하늘에 맹서하니 산과 물이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는 것이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곧 충무정신이며 장군다운 위력이 풍기는 내용이다. 두 칼의 검신에는 다같이 갑오 4월 일조





태귀연이무생작(日造 太貴連李茂生作)이라 새겨 있는데 이 칼은 선조 27년(1594) 4월에 한산도 진중에서 당시 칼을 만드는 대표적인 명수로 이름난 태귀연(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크기는 길이가 197.5cm이다.

●옥로(玉鷲) : 백옥제(白玉製)로 연꽃잎에 싸인 백로 세 마리를 조각하였기 때문에 옥로라 한다. 옥로는 옛날 우리나라 제도에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나 명을 받고 외국에 가는 사람이 갓 위에 달았던 장식품이다.



●요대(腰帶) : 일반적인 형식에 속하는 각대(角帶)로 표면에는 장방형(長方形) · 심엽형(心葉形) · 화문(花文) 등의 금속장식이 부착되었고 여기에 범과 구름을 조각하여 무용(武勇)을 나타내고 있다. 명(明)나라 장수 왕원주(王元周)가 공의 지용(知勇)과 후덕(厚德)을 높이 찬양하여 보낸 것이다.

●도배 구대(桃盃 俱臺) : 배(盃)와 대(臺)는 모두 얇은 동판으로 만들었으며 도금한 것이지만 지금은 그 도금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이는 그 형이 복숭아 같아서 도배라 부르는 한 쌍의 술잔으로, 복숭아 나뭇잎 세 잎이 반치고 있는 자연스럽고 예쁜 것이다. 대(臺)는 좁은 전을 가진 무늬없는 둥근쟁반 모양이다. 난중일기 초본 무술년 10월 4일 책 머리 잡기사에 보면 중국의 장수 진파총으로부터 화주배(花酒杯) 1쌍을 선물받았다고 했는데 이 선물이 그것으로 추정된다. 이 해는 서기 1598년 10월 4일이 되므로 충무공이 순국하시기 달포 전이었다.

##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牙山 坪村里 石造藥師如來立像)

보물 제 536호



- ◆지정년월일 : 1971년 7월 7일
- ◆위치 :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산 2의 4
- ◆수량 : 1구
- ◆규모 : 전체높이 550cm
- ◆재료 : 화강암
- ◆시대 : 고려시대 초기

온양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평촌리 마을 뒷산에 있다. 현재는 용담사(龍潭寺)란 현판을 단 민가 같은 집과 여래입상 뒤에 법당이란 현판이 있는 민가형의 집이 있다. 이 여래입상은 매우 큰 석불입상으로서 1매석 화강암으로 되었으며 두광(頭光)이나 신광(身光)은 없다. 불두(佛頭)는 라발(螺髮)이며 육계가 큼직하게 조각되고 보안(寶顏)은 원만하며 백호는 화강암 자체로 조각하여 나타냈다. 귀는 길어 어깨선까지 흘러내렸으며 입술이 다른 부분보다 유난히 작고 얇아서 인상적이다. 목에는 뚜렷하게 삼도(三道)를 표시했다. 인계(印契)는 오른손으로 감싸고 손바닥의 눈금도 보이는데 왼손으로 약함(藥盒)을 받치고 있다. 약함은 원형의 윗부분에 선을 넣어 구연부를 표시하여 이 부처가 약사여래임을 알 수 있다.

법의를 통견(通肩)으로 양쪽 어깨에서 흘러내려 양팔에 걸쳤다가 옆으로 무릎선까지 흘러내리고 있으나 의문(衣文)은 도식화(圖式化)되어 타원형을 하고 있으며 두다리 부분에서는 동심원(同心圓)을 그리고 있다. 거대한 입불(立佛)로 눈과 코도 완









전하다. 눈은 가늘게 뜨고 코는 오뚱하며 입은 좀 작은 편이다.

이 입불의 철책(鐵柵) 밖 왼쪽에 용담사 사적비가 있는데 이 비(碑)는 화강암의 판석으로 자연석 비좌 위에 높이 1m, 너비 58cm의 비석을 장방형으로 다듬어 세우고 자경(字經 3cm의 글씨를 새겼으나 전부를 판독하기 어렵다. 내용은 병무(丙戊) 중춘(仲春) 15일에 세웠고, 신라(新羅) 애장왕(哀莊王) 때에 원효(元曉)가 창건하고 고려 광종 때에 혜명조사(慧命祖師)가 중창하였다고 하였다. 조각수법과 양식으로 부아 고려 초기인 10세기 이후로 추정되는 아주 우수한 작품이다.



## 온양 읍내리 당간지주 (溫陽 邑內里 幢竿支柱)

### 보물 제 537호



- ◆ 지정년월일 : 1971년 7월 7일
- ◆ 위치 : 온양 읍내동 255의 2
- ◆ 수량 : 1기
- ◆ 규모 : 전체높이 410cm
- ◆ 재료 : 화강암
- ◆ 시대 : 고려시대 초기

이 당간지주(幢竿支柱)는 온양시내에서 송악면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양향교 남쪽 길 옆에 서 있다. 장방형의 석주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현재의 길보다 아래에 있다. 이 위치는 원래의 위치로 이 당간지주의 남쪽에 근접하여 연못이 있었는데 가운데에는 석축을 쌓아 원형의 동산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 지역 일대에 기와편과 석탑재 등이 남아 있어 사역(寺域)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지역은 평탄한 논밭이며 북동으로 얇은 구릉에는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곳이 절의 사역에 해당되고 석탑위치가 확인되고 있다. 당간지주가 있던곳이 사찰 입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연못은 아마 연지(蓮池)일 가능성이 높다.

당간지주의 기단부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자연석으로 지주를 고정하였으며 지주 사이의 간대는 화강석을 윗면만 가공하여 당간을 세우는 원좌를 만들어 고정하였다.

당간지주는 직사각형으로 외곽의 2면은 모를 죽여 다듬었으며 맨 위에 당간을 고



정시키는 직사각형의 간구(竿溝)만이 남아 있을 뿐 다른조각은 없는 간소하고 소박한 형태이다. 상단부는 4分圓의 호형(弧形)인데 크기는 석주(石柱)의 높이가 410cm 너비가 55cm이고 두께가 39cm이다. 주변의 유물과 양식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 기사계첩 (耆社契帖)

보물 제 639호



- ◆지정년월일 : 1978년 12월 7일
- ◆위치 :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 ◆수량 : 1책
- ◆시대 : 조선시대 중기

기사(耆社)는 원래 70세 이상된 정삼품 이상의 중신들을 우대하는 뜻에서 만든 모임인데 조선조 태조 3년(1394) 시작되었다. 이 기사계첩은 숙종 45년(1719)에 있었던 계회(契會)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계회에 참석하였던 기신들의 발의로 그 해 4월 17일과 18일에 있었던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진형의 제작이 오래 걸려 1720년에 완성한 것이다.

이 계첩은 원래 총 50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계첩이 2면, 숙종의 어제(御製) 2면, 어첩발(御帖跋) 2면, 계회의 행사 때의 배진입로(陪進入路) 2면, 어첩봉안도(御帖奉按圖) · 승정전진하전도(崇政殿眞賀箋圖) ·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 ·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등의 그림이 각 2면씩, 기신(耆臣)들의 명단 2면, 기신들의 진영(眞影) 10면, 기신들의 축시 19면, 이 계첩작성의 감조관(監造官) · 서사관(書寫官) · 화원(畫員)의 명단 1면이다. 이 50면을 세로 52cm, 가로 36cm의 크기로 첩을 만들었으나 계회행사를 그린 2점은 2면에 걸쳐







그렸다. 1974년 전체를 개장하여 원형을 충실히 살리면서 2면을 1장면으로 하여 가로 59.5cm, 세로 76cm의 첩을 만들었다.

계첩서(契帖序)에 의하면 계첩은 모두 12부를 만들었는데 1부는 기소(耆所)에 보관하고 11부는 기신들이 1부씩 나누었다고 되어 있다. 각면의 글씨나 그림의 바탕은 생명주를 썼으나 어제만은 붉은 색으로 그리고 행사의 장면을 그린 다섯 장의 그림과 진영은 채색을 사용하였으며 비단으로 표구하여 첩을 만들고 기신들이 지은 축시는 자필로 써서 각자의 서체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그 외의 글씨는 해자로 서사관이 썼다. 18세기초의 초상화 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어 이 계첩의 의의는 대단히 큰데 계첩서나 어제발을 통하여 기사의 상세한 유래가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 자료로 중요하며, 다섯 장면의 그림이나 진영은 회화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편 이유, 김창집, 김우항, 임목, 황흙, 강현, 홍만조, 이선부, 정호, 신임등 10명의 초상화가 있으며 기신들의 자필축시는 당시의 필적으로 중요하고, 김진여, 박동진, 장득만, 허숙 등 어용화사(御容畵師)의 화원 명단은 회화사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 아산 맹씨 행단 (牙山 孟氏 杏壇)

### 사적 제 109호



-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 위치 : 아산시 배방면 중리 300
- ◆ 소유 : 신창맹씨 종중
- ◆ 면적 : 7,851㎡
- ◆ 시대 : 조선시대 초기

아산(牙山) 맹씨행단(孟氏杏壇)은 온양온천에서 구 온양을 거쳐 좌부리(左部里)라는 곳을 지나 6km쯤 되는 지점에 있는데, 설화산(雪華山)을 서남으로 등지고 배방산(排芳山)을 동북으로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산 맹씨행단 내에는 나무 나이 600여년의 은행(銀杏)나무가 있고 건물이 있다.

건물의 간수와 규모를 살펴보면 주방(廚房)쪽 좌우방 전면이 253cm이며, 길이는 563cm이다. 중앙 대청은 좌우 2칸인데 앞쪽이 앞마루이고 측면에도 뒷마루가 붙어 있다. 또 기둥과 도리에는 단포(單包)와 봉설(鳳舌)이 장식(裝飾)되어 있다. 이 집은 비록 큰 건물은 아니나 남북에 방이 있고 중앙이 대청으로 된 기와집으로 ㄷ자형의 평면을 갖고 있다.

이 집에 대한 설화로 최영장군(崔瑩將軍)이 자기가 머물렀던 집을 질서(姪婿) 맹사성(孟思誠)에게 물려주었다는 말도 있으나 확인하기 어렵고 이 행단은 맹씨의 고택유허(故宅遺墟)로 생각하면 되겠다.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어서 여기를 행단이라 부르게 된 듯하나 공부하던 자리의 의미인 향단(香壇)이 와전(訛傳)되면서 행단이 된





것 같기도 하다.

고택 뒤편으로는 고불과 부친, 조부의 위패를 모신 사당(祠堂) 세덕사(世德祠)가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쳐 있고 전면(前面) 하단에는 후손 일가들이 세거(世居)해온 별채의 건물들(안채와 대문간채 등)이 후일에 세워진 듯하다. 고택 본채는 우리나라 민가류 건물 중 가장 오래 된 고식수법(古式手法)을 보이고 있으며 전면쪽으로 후일에 내어달은 모습의 유구가 지중(地中)에 남아 있다.

초창년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1482년, 1632년, 1929년에 각각 중수한 기록이 있고 1970년도에도 개수가 있었다. 가구부(架構部)에 남아 있는 고부재(古部材)와 분벽(粉壁)된 벽체, 창호(窓戶) 등이 견실한 고법을 간직하여 조선초기 이전의 건축(建築) 모습을 전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맹사성(1360~1438)은 고려와 조선시대 사람으로서 우왕(隅王)때 장원(壯元)하고 세종 13년에 우의정(右議政)이 되어 명상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청백리(清白吏)로 여러가지 일화를 남겼다. 자(字)는 자명(自明)이며, 호는 고불(古佛), 동포(東浦)이고, 본관(本貫)은 신창(新昌)으로 온양출신(溫陽出身)이다.



## 이 충무공 묘 (李 忠武公 墓)

### 사적 제 112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위치 :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 2-1
- ◆소유 : 이재국(李載國)
- ◆면적 : 9,600 m<sup>2</sup>
- ◆시대 : 조선시대 중기(1599)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적탄에 맞아 최후를 마친 것이 선조32년(1598)10월 18일이었는데 그의 조카인 완(莞)이 충무공의 유언(遺言)에 따라 공의 운명을 숨기고 대신 진두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적이 패퇴(敗退)한 뒤에 공의 서거(逝去)를 발표하였다. 그 해에 고향인 아산으로 운상(運喪)하여 선영(先塋)이 있는 곳에 안장한 것은 선조33년(1599년) 2월이었다. 처음에는 무덤 앞에 조그만 돌로 묘표(墓標)를 세웠다가 뒤에 영의정(領議政) 김육(金堉)의 글로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묘비는 묘앞에 세웠으나 신도비는 묘에서 거리가 먼 묘 입구인 큰 길가에 서 있으며 묘표는 공의 5대손인 통제사(統制使) 봉상(鳳詳)이 새로 돌을 바꾸어서 당시의 판부사(判府事) 이신명의 글을 받아서 음기(陰記)를 새겨 넣었다. 묘소 앞에는 상석 1기, 장명등(長明燈) 1쌍, 석상(石像) 1쌍이 놓여 있다.

충무공(忠武公)의 본관(本貫)은 덕수(德水)이며 자(字)는 여해(汝諧)다. 아버지는 병절교위(秉節校尉) 정(貞)이요 어머니는 초계(草溪) 변씨(卞氏)로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무과에 합격하여 여러 곳의 군관 및 지방수령을 거쳐 임란직전 전라좌



수사로 있었다.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를 조련(操鍊) 시키면서 거북선을 만들었다. 임란이 일어나자 육상에서는 북상하는 왜적을 물리치지 못했지만 해상의 경우 충무공의 힘이 미치는 남해에서는 왜적이 얼씬을 못했다 한다. 정부에서는 남도의 수군지휘권을 공의 휘하에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새로이 통제영(統制營)을 설치하여 통제사(統制使)에 취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략으로 인하여 직위가 삭탈(削奪)됨과 동시에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정유재란으로 공(公) 대신 통제사가 된 원균(元均)이 왜적에게 대패하면서 전사하자 공은 얼마남지 않은 군사와 선박을 이끌고 진도 벽파진에서 적의 대군을 대파시키고 다시 고금도로 진을 옮겨서 탈출하려는 소서행장의 선단(船團)을 맞이하여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나 왜적은 큰 타격을 입고 도망갔던 것이다.

공(公)의 전적(戰蹟)에는 이항복(李恒福)의 전라좌수영대첩비(全羅左水營大捷碑), 이민서(李敏敍)의 오계대첩비(鳴梁大捷碑), 정기안(鄭基安)의 제승당 유허비(制勝堂遺墟碑)·송시열(宋時烈)의 통제영충렬사기(統制營忠烈祠記), 이신명의 고금도유사기(古今島遺祠記) 등의 많은 비갈(碑碣)이 있으며 공을 봉사(奉祀)하는 곳으로는 순천(順天)의 충민사(忠愍祠), 해남(海南)의 충무사(忠武祠), 남해(南海)와 통영(統營)의 충열사(忠烈祠), 아산의 현충사(顯忠祠) 등이 있다.

## 아산 이충무공 유허(현충사) (牙山 李忠武公 遺墟(顯忠祠))

### 사적 제 155호



- ◆지정년월일 : 1967년 3월 18일
- ◆위치 :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84-1외
- ◆소유 : 국유
- ◆면적 : 1,404,566㎡
- ◆시대 : 조선시대

백암리에 있는 현재 아산 현충사(顯忠祠)를 말한다. 본래의 이름은 배암밭으로 한자로 백암리(白岩里)라 표기하였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1545~1598)은 서울 건천동(乾川洞) (지금 인현동〈仁峴洞〉)에서 태어나셨는데 본관(本貫)은 덕수(德水), 부(父)는 정(貞)이다. 어릴 때 이곳으로 옮겨 살아 종가(宗家)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종가 앞에 우물, 활터 등이 있으며 전부 보수하여 새로 단장하였다. 이 종가에는 이충무공의 친필, 난중일기, 장계(狀啓) 등이 보존되어 왔다. 조선 숙종 30년(1704), 이곳 유생들이 사당 세우기를 상소하여 숙종 32년에 조정이 허락하여 사당을 세웠다. 숙종 33년에 국왕이 현충사(顯忠祠)로 사액(賜額)하였다. 그 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하여 훼손(毀撤)되었다가 1932년에 이충무공유적보존회와 동아일보사가 중심이 되어 전국민의 성금으로 현충사를 복원하였다.

1962년 충청남도지사가 이충무공 탄신기념사업위원장이 되어 경내를 확장하고 유물전시관 등을 신축하였다. 1966년 박정희대통령(朴正熙大統領)이 성역화(聖域化)를





계획하여 본전(本殿) 등을 건축하고 1967년 현충사를 사적 제155호로 지정하였다. 1967년 이충무공 제422회 탄신기념 및 성역화 준공식을 거행하였는데 한식팔작(韓式八作)집 본전(本殿)과 내삼문(內三門), 홍삼문(紅三門), 정려(旌閭), 정문(正門), 고택(故宅,) 충무정(忠武井), 활터, 유물전시관, 그 외의 부대시설을 갖추면서 주변을 조경하여 민족의 성웅(聖雄)인 이충무공의 유허(遺墟)를 완전히 성역화하였다.

#### 현충사 관리소는

광복 이후 충청남도 아산군 교육청 소속이었으며, 1967년 현충사가 사적 제 155호로 다시 지정되면서 이듬해인 1968년 충청남도로 관리 이전되었다가, 그 해 12월 31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문화공보부 직속기관으로 승격되었으며, 1999년 이후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로 직제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아산 성준경 가옥 (牙山 成俊慶 家屋)

### 중요민속자료 제 194호



- ◆ 지정년월일 : 1984년 12월 24일
- ◆ 위치 :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
- ◆ 수량 : 5동(안채 · 사랑채 · 고방채)등
- ◆ 재료 : 목조 기와집
- ◆ 시대 : 조선시대

조선시대 중부지방의 특색을 지니고 있는 기와집이다.

수림(樹林)으로 둘러싸인 진입로 입구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무지개처럼 휘어진 소나무 등걸이 대문을 대신하고 있는 등 집안에 아름다운 나무가 짝 차 있다. 여기에 "ㄷ" 자형의 안채, "—"자형의 중간문채, "ㄱ" 자형의 사랑채가 日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건물의 축(軸)은 거의 남북향(丙坐壬向 34 5° )에 가깝다.

안채는 ㄷ자형이며 5칸 겹집의 몸채에 날개는 맞걸이 홑집인데 왼쪽은 3칸, 오른쪽은 4칸이다. 간살이는 왼쪽 날개 앞으로부터 2칸 부엌, 2칸 안방, 모칸은 찻방인데 꺾어져서 좌우 2칸을 쓴다. 옷방에서 꺾어진 부분은 마루가 되고 다음이 2×2칸의 대청이며 오른쪽 모칸은 상하 2칸의 건넌방이다. 오른쪽 날개는 안사랑, 아래부엌, 아랫방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으며 집 뒤와 양 옆에는 쪽마루가 나 있다. 막돌 허튼층 쌓기 두벌대의 높이이며 덩벙 주초(柱礎)를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다. 몸채는 3평주(平柱) 5양(梁)의 양통집 구조인데 대청칸만 긴보 5양(梁)으로 처리하였다. 날





개부분은 맞걸이 3양(樑) 구조이며 지붕은 박공으로 처리하였다.

사랑채는 ㄴ자형의 5칸 전퇴집이다. 오른쪽으로부터 갓사랑, 대청, 가운데 방, 다음 모간은 뒤로 꺾어지면서 상하 2칸 큰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에는 툇마루가 놓였다. 1고주(高柱) 5양(樑)집으로 납도리에 장혀를 받쳤다. 막돌을 쌓아 덧돌을 마련하였으며 기단(基壇)·축대(築臺)는 3단(段)이다. 덩병주초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흘쳐마집이다.

그 사이에 있는 고방(庫房)채는 4칸 맞배 지붕으로, 왼쪽에 3칸의 광과 오른쪽에 중문 칸이 있다. 특별한 정원시설은 하지 않았으나 지형을 이용하여 적당히 축대를 쌓아 전통 가옥에서 흔히 보는 매화(梅花), 비자,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등을 울창하게 심어 외부공간을 아름답게 꾸몄다. 최근에 「승정기원후 사을유 삼월 이십일오시상량 병좌(崇禎紀元後 四乙酉 三月 二十日午時上樑 丙坐)」라는 상량문(上樑文)이 조사되어 그 건축연대가 1825년으로 밝혀졌다.



## 아산 외암리 참판댁 (1)(2) (牙山 外岩里 參判宅)

### 중요민속자료 제 195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12월 24일
- ◆위치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88
- ◆수량 : (1) : 3동(안채 · 사랑채 · 문간채)  
(2) : 2동(안채 · 사랑채)
- ◆재료 : 목조기와집
- ◆시대 : 조선시대 말기

외암리 동쪽마을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집으로 2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큰 집은 ㅁ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향(巳向)(동남남)이며 앞쪽에 배치하였다. 대문채는 약간 서쪽으로 들어서 사랑채를 정면으로 보지 않도록 했으며 대신 중간 칸을 곳간채 동남칸에 두어 측면에서 꺾어 들어가도록 하였다.

안채는 10칸의 ㄱ자집으로서 중부지방 형식의 간살이이다. 가로칸은 전퇴이고 세로칸은 맞걸이인데 서남으로부터 2칸 부엌 · 안방 · 옷방 · 골방의 순이고 꺾어져 2칸 대청 · 반칸 크기의 건넌방과 작은 부엌 · 맨 끝에 머리방의 순으로 배치되었다. 1고주(高柱) 5량(梁)의 납도리집인데 전면 처마도리에만 장혀를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땃돌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바른층 두벌 쌓기의 높이이고 낮은 덩병주초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몸채의 양쪽에 합각을 만들었으며 날개 앞면은 박공으로 만들었다.





사랑채는 5칸 一자집이다. 동에서부터 2칸 큰사랑 · 대청 · 작은사랑으로 배치되었으며, 앞되는 동에서부터 골방 · 고방이고 나머지 3칸은 뒷마루이다. 1고주 5량의 납도리집에 허튼층 두벌쌓기의 댓돌 위에 덩병 주초를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으며 지붕은 우진각지붕이다.

대문채는 一자형 8칸 후퇴집으로 중앙에 솟을 대문을 두고 헛간과 구들로 간살이가 이루어졌다. 후퇴는 모두 퇴방이고 모임지붕이다. 이 집의 특징은 돌담으로 공간을 구획한 것으로, 대문칸 앞으로 돌담을 쌓아 깊이있는 진입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마당의 배치도 운치가 있다.

작은 집은 큰 집 바로 아래에 큰 집과는 전혀 별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집도 ㅁ자형 배치로 앞에 문간채, 뒤쪽에 안채와 사랑채가 ㅁ자로 서 있는데 서남향의 축을 하고 있으나 문간채는 거꾸로 사랑채를 향하도록 동쪽으로 틀어져 있다.

안채는 6칸 ㄱ자형 후퇴집으로 가로칸 · 세로칸 모두 후퇴를 두었다. 앞에서부터 부엌 · 안방 · 사이방 · 옷방, 꺾여져서 2칸 대청 끝에 상하 건넌방이 있다. 건넌방 앞에 누마루가 놓이고 앞면에는 간결한 난간 시설이 있다. 1고주 5량인데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에 덩병주초를 두고 네모기둥을 세운 합각지붕이다.

사랑채도 7칸 ㄱ자형인데 앞에만 퇴를 두었다. 구성은 오히려 납도식이다. 서로부터 사랑아래방 · 부엌 · 큰사랑 · 작은 사랑방, 꺾여서 대청 중문칸 문간방의 차례이며, 1고주 4량이다.

문간채는 일자 맞걸이 4칸 초가지붕이다. 가운데 대문시설을 두고 왼쪽에 방과 뒷간, 오른쪽에 3칸 헛간을 두었다. 곳간채는 안채 동쪽에 약간의 거리를 띄워서 세로로 배치한 一자 맞걸이 3량의 우진각지붕이다.

이 집들은 19세기말에 지어진 건축으로, 한말 규장각의 직학사(直學士)와 참판(參判)을 지낸 이정렬공(李貞烈公) 퇴호(退湖)가 고종으로부터 하사를 받아 지은 집이라고 전한다.



「아산 외암리 참판댁」

##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尹潽善 前大統領 生家)

### 중요민속자료 제 196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12월 24일
- ◆위치 : 아산시 둔포면 신탄리 143
- ◆수량 : 1곽(안채 · 사랑채 · 행랑 · 호지집)
- ◆재료 : 목조 기와집
- ◆시대 : 근세

넓은 평지에 자리잡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으며 주변에 있는 세 채의 기와집과 솥을대문을 공동으로 쓰고 있다. 전체 평면은 파(巴)자형으로 동남향을 축으로 하고 있으며 뒤쪽에 ㄱ자형의 안채 중간에 ㄴ자형 안사랑채, 바깥에 ㄴ자 행랑채를 둘러서 日 자형을 만들고 동쪽 모서리에 ㄴ자 바깥 사랑채를 배치했다. 행랑채는 길에 면하고 있으나 바깥 사랑채에는 담을 둘러서 앞에 별도의 대문을 설치하였다. 바깥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도 담장으로 구획하고 편문을 두었다.

안채는 9칸 ㄱ자형으로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평면구성인데 부엌이 동쪽에 배치되는 것이 다르다. 가로 칸은 전퇴, 세로 칸은 아래 퇴를 붙인 집으로, 남으로부터 부엌, 안방, 셋방, 옷방의 차례로 두고, 꺾어져 2칸 대청, 2칸 건넌방, 맨머리에 작은 부엌을 두었다. 집 뒤의 1칸은 후에 달아낸 것이다. 1고주(高柱) 5량(梁)으로 납도리에 장혀를 붙였으며 네모뿔대 주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올린 홀 처마 합각 지붕이다.

바깥 사랑채는 별당채 비슷하게 높은 누마루집으로 6칸 전퇴집인데 서북쪽으로 2칸을 달아내어 ㄴ자형 평면을 하고 있다. 서로부터 누마루, 2칸 큰사랑, 2칸 대청,





사랑 건넌방이 있고 앞퇴에 뒗마루가 있다. 1고주 5량으로 네모뿔대 주초위에 네모기둥이 서 있으며, 단순히 벽돌로만 합각을 쌓은 합각 지붕이다.

안 사랑채는 안마당을 싸면서 ㄴ자형을 이루고 있는 맞걸이 맞배지붕이며 세로, 가로 모두 6칸이나 전체는 11칸 반이다. 덩병주초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행랑채는 안 사랑채 보다 한단 낮게 지붕을 잇대어 지었는데 맞걸이 3량집이고 솟을 대문이다. 세로로 7칸, 가로로 8칸, 모두 15칸이다.

이 집은 윤보선 전대통령의 선친인 윤치소(尹致昭)가 1907년에 지었다고 하나 바깥 사랑채는 192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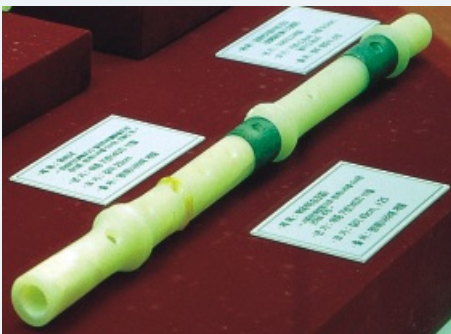


## 전세 맹고불 유물 (傳世 孟古佛 遺物)

### 중요민속자료 제225호

- ◆ 지정년월일 : 1990년 10월 10일
- ◆ 위치 : 아산시 배방면 중리
- ◆ 수량 : 1괄 (5점)
- ◆ 규모 : 옥적(玉笛) : 길이 50.5cm 지름 2.7cm  
 백옥방인(白玉方印) : 총 높이 8.2cm 인면 4.2×4.1cm  
 채석(彩石) 포도문(葡萄文) : 25.0×15.5×2.5cm  
 수정죽절(水晶竹節) 비녀 : 전체길이 23.8cm  
 목칠 도형배(木漆 桃形杯) : 높이 5.2cm 지름 9.3~8.8cm
- ◆ 재료 : 옥 · 목제 · 수정
- ◆ 시대 : 조선시대

조선 초기의 청백리(淸白吏) 정치가였던 고불(古佛) 맹사성(孟思誠)의 유품(遺品)으로 전하는 유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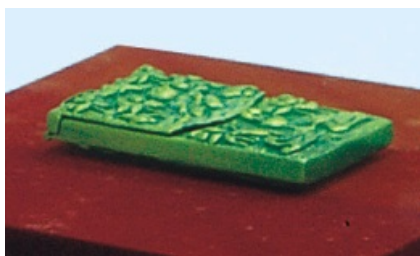
**옥적(玉笛) :** 백옥(白玉)으로 만든 잣대이다. 횡적(橫笛)으로 일제시대 때 네도막으로 부러져 백동관(白銅管)으로 감싸서 수리하였다. 玉은 약간 황색과 옥색이 도는 백옥계열의 돌인데 대나무 세도막(마디 세 개)을 깎아 새겼다. 구멍이 7개인데 소리는 지금 쓰는 대금소리와는 다르고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중금과도 다르다. 그러나 다른 옥적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만든 작품으로 약간의 음정차는 있



으나 고른 음정을 갖고 있다. 실제로 사용된 것이라기 보다는 옥(玉)이 가지는 상징성을 살려 상징적인 악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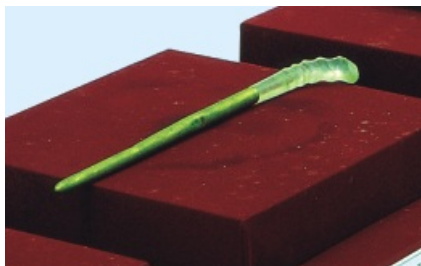


**백옥방인(白玉方印)** : 도장의 손잡이 부분에 얹아 있는 당사자를 큼직하게 새긴 옥제(玉製)의 도장이다. 머리가 크고 큰 귀를 늘어뜨리고 있으며 수염까지 표현하였다. 재질(材質)은 복건성(福建省) 수산향(壽山鄉)에서 나는 수산계(壽山系)인데 인면에는 가운데 「죽관(竹觀)」이라는 글자를 각각 원 안에 백문으로 음각하여 강조하였고 그 좌우에는 「만산명월(萬山明月)」 「일사화풍(一事和風)」 두 구절을 전서체의 주문으로 새겼다. 백문과 주문의 배치가 미숙하고 전각의 수법도 격이 높은 것은 아니다. 죽관은 음악에 깊은 조예를 가졌던 고불의 알려지지않은 호(號)가 아닌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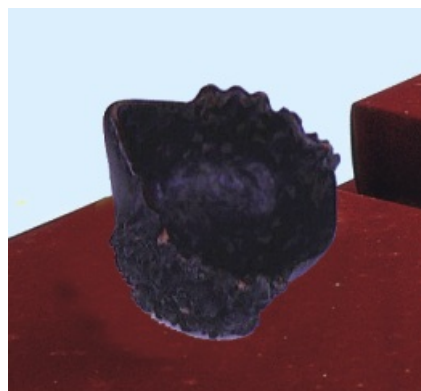
**채석포도문일월연(彩石葡萄文日月硯)** :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자색연(紫色硯)의 일종이다. 채석이라고 붙인 것은 담청(淡靑) 또는 황백색의 돌켜가 담청색의 돌 사이에 약 7mm 두께로 끼어 있어 이것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조각을 했기 때문이다.

가운데 둥근 연면(硯面)을 두고 그 주위에 한그루의 단풍 고목나무에 포도덩굴을 틀어 올렸는데 풀썩의 개구리, 포도동자(葡萄童子)와 포도송이, 덩굴에 매달린 원숭이와 바위 위에 앉아 서로 정답게 바라보는 두 마리의 원숭이들을 사실적으로 양각하여 조선시대 공예품에서는 보기 어려운 회화적인 정밀묘사를 하고 있다.



**수정죽절(水晶竹節) 비녀** : 수정을 대나무 밑둥처럼 다듬어 머리를 만들고 몸통에 구리판을 말아 끼웠는데 원래의 수정제 끝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표면이 풍화되어 운모질(雲母質)이 드러나 있다. 수정제 머리에 축을 만들어 구리관 속에

3cm쯤 꽂았고 구리관은 말아서 주석땀을 하였다. 구리관을 쓴 예는 매우 희귀하다.



**목칠도형배(木漆桃形杯)** : 해당화의 밑둥치로 만든 표주박으로 표자(瓢子) 또는 군지(軍持)라 하는데 휴대용 음료수잔이다. 해당화의 중심뿌리뿐 아니라 주변의 잔뿌리를 살려 안을 깎아 만들었는데 안팎에 옷칠을 하였다. 고불(古佛) 맹사성(孟思誠)(1388-1438)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친 청렴하고 덕망있는 관리로 신창(新昌)이 본관이다. 고려 말 우왕(禡王)때

발탁되어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교열(校閱)에 오르고 조선조에 여러 벼슬을 거쳐 세종 9년(1427)에는 우의정에 오르고 동 11년(1429)에 범장(凡杖)을 받았으며 동 13년(1431)에 좌의정에 올랐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온양에 내려와 여생을 보냈다. 고려사와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음율(音律)에도 밝아 향악(鄕樂)을 정리하고 손수 악기도 만들었다. 유물중 옥적과 도장의 죽관이나 시문구는 음악에 깊은 조예를 가졌던 고불(古佛)의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는 유품이다.

## 아산 건재고택 (牙山建齋古宅)

### 중요민속자료 제 233호



- ◆ 지정년월일 : 1998. 1. 5
- ◆ 위치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 수량 : 1곽(안채, 사랑채, 문간채, 광채, 사당)
- ◆ 재료 : 목조와가
- ◆ 시대 :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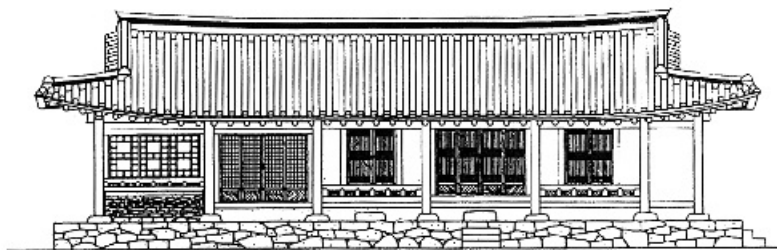
외암 마을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이 집은 주인이 전라도(全羅道) 영암 군수(靈巖郡守) 재직을 연유로 영암택이란 택호(宅號)가 붙혀졌다. 건물의 배치와 규모, 건축적 기법으로 보아 이 마을을 대표할만한 주가(住家)이다. 문간채는 정면7칸과 측면1칸으로 가운데 한 칸에 솟을 대문을 내고 그 좌우로 광과 온돌방, 외양간 등을 두어 행랑채의 역할도 겸한다. 대문 안쪽에는 넓직한 사랑마당에 정원이 수려하게 가꾸어졌고 멀리 사랑채가 바라다 보인다.

사랑채와 안채는 ㄱ字형의 집으로 서로 마주해 있어 '튼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의 좌측에는 공간이 우측에는 나뭇간이 따로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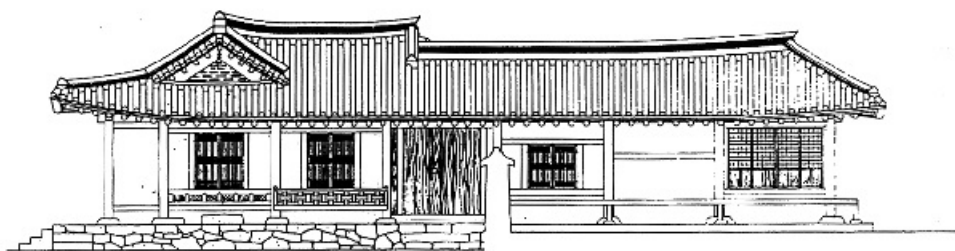
사랑채에는 큰사랑과 작은사랑방이 가운데에 대청을 두고 접해서 각 2칸씩이며 큰사랑방의 좌측에는 높은 누다락방이 한 칸 더 붙어 있다. 그리고 전후면에 반칸 퇴마루가 우측면에게까지 돌려져 있다.

두벌대로 된 적절한 높이의 기단(基壇)위에 덩벙주초(柱礎)를 놓고 각주(角柱)를 세웠다. 기둥 위에 납도리를 얹고 흘처마로 구성한 2고주(高柱) 5량(樑) 가구(架





영암댁 사랑채 정면도



영암댁 사랑채 측면도

構)의 팔작 기와지붕이다.

안채는 대청 2칸을 중심으로 서쪽엔 안방과 부엌이 남북으로 길게 뻗었고 동쪽에는 건넌방 한 칸이 달려 있다. 안방은 사실상 아래, 옷방으로 구획되고 그 위에 마루방 한 칸이 더 있다. 안방 부분의 이 세칸 사리에 장지문을 달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떼어 놓으면 전체가 큰 한 방이 된다. 아랫방과 건넌방은 후면 처마 밑까지 퇴를 내어 넓혔고 건넌방 앞의 퇴마루는 높은 누마루로 하고 그 밑에 함실아궁이를 들였다.

안채 부엌 뒷편에 곳간채 5칸에 마루광과 토광이 있다. 안채 동편에 나뭇간채 2칸과 후정에 떨어져 가묘(家廟)가 배치(配置) 되었다.

가묘는 정면 1칸, 측면 1칸반의 맞배집으로 마루방 한 칸에 반간통(半間通)의 전퇴(前退)를 둔 것이다.

사대봉사(四代奉祀)를 위한 작은사당인 썸이다.

이 집의 배치에서 특이한 점은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중문 안에 내외담을 설치하





여 바로 안채가 들여다보이지 않게 하였다. 또 중문 밖으로도 담장을 연장하여 내외정원을 완전히 분리하였다. 사랑마당에는 상당한 넓이의 공간이 확보되어 우리나라의 전통정원기법과는 판이하게 다른 즉 자연경관을 위주로 한 우리 정원에 여러 조경적 요소들을 복합시킨 정원이 꾸며져 있다.

설화산(雪華山)에서 흘러내린 맑은 계류줄기가 집집마다 구비돌아 생활용수로 삼고 있는데 이 물을 이용하여 사랑마당에 20평 남짓한 연못을 꾸몄다. 외곽(外廓)돌담과 내담밑에 내어진 입수로를 통해 들어온 유수로를 완만한 곡선으로 유도하고 작은 폭포를 갖추어 연못을 만들고 돌다리와 징검다리도 놓았다.

안채 뒤의 광활한 환경사지에 펼쳐진 후정(後庭)은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한 일종의 위락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유실수와 꽃나무로 잘 가꾸어져 있다.

천 여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와 이를 에워싼 286m의 돌각담장 그리고 고졸한 품위를 갖춘 고가와 정원 등이 비록 깊은 연륜을 갖진 않았으나 우리나라 정원의 시대에 따른 변천과정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정원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 아산 외암마을 (牙山 外岩 마을)

###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제2호



- ◆ 지정년월일 : 1988년 8월 18일
- ◆ 위치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258외
- ◆ 규모 : 205,073㎡
- ◆ 재료 : 목조건축
- ◆ 시대 : 조선시대

외암리(外岩里) 예안(禮安) 이씨(李氏)의 동족(同族)마을이 있는 곳의 가옥 전체가 전통적인 가옥들로 차 있어 보존지구로 지정한 것이다.

외암마을은 북쪽의 설화산(雪華山)을 주봉(主峰)으로 그 남쪽 경사면에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데 서쪽의 어귀는 낮고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진 서저동고(西低東高)의 지형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조건에 따라 주택은 거의 서남향이며 간혹 남향도 있다. 이러한 지형조건에 따라 주택들은 입구의 물(다리)을 건너면서 형성된 길을 따라 마을 안길이 크게 간선도로(幹線道路)를 이루고 그 좌우로 샛길을 내고 있어 마치 큰 나뭇가지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2005년 현재 54가구에 2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중 예안 이씨가 30여가구이고 나머지 윤(尹), 김(金), 신(申), 강(姜)씨 등 각성(各姓)들이 1내지 2가구씩 살고 있다.

마을의 역사는 알 수 없으나 마을의 입지가 좋고 일조량이 많으며 겨울에 서북계 절풍을 막아 주는 등 지형적인 이점이 있어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된 듯하다. 전하





는 바에 의하면 500여년전부터 강(姜)씨와 목(睦)씨가 살고 있던 혼성(混姓) 마을이었는데 조선(朝鮮) 명종(明宗 1545-1567)때 장사랑(將士郎)을 지낸 이연(李延) 일가(一家)가 이 곳에 이주(移住)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후 후손들이 번창하고 인재가 배출되자 마을이 반촌(班村)의 면모를 갖추고 집도 격(格)이 있는 반가(班家)가 생겨나게 되었다.

예안 이씨는 전의(全義)이씨에서 분파한 것인데 시조(始祖) 이도(李棹)의 7대손인 이혼(李混)이 예안백(禮安伯)에 봉(封)해진 것을 계기로 예안을 본관으로 삼았다. 이후 이혼(李混)의 8대손인 이정(挺)이 외암리로 들어오면서 온양파(溫陽派)가 되었다. 마을 이름이 외암으로 불리게 된 것은 정(挺)의 6세손인 이간(李柬)에 의해서인데 그는 숙종조(肅宗朝)에 난 수학자로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었다. 호를 설화산의 우뚝 속은 형상을 따서 외암(巍巖)이라 지었는데 그의 호를 따서 마을 이름을 외암이라 불렀고, 그 후 언제부터인지 한자동음으로 획수가 적은 외암(外岩)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마을은 비교적 반풍(班風)이 강하고 완고한 기질이 있는 듯하다. 한편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며 사소한 일에 쉽게 움직이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농업이 주이므로 세시풍속(歲時風俗)도 농경사회의 그것과 같고 지리적으로 한양과 가깝고 고관대작이 나왔으며 반가(班家)와 왕래가 잦아 서울의 풍속과도 커다란 차가 보이지 않는다. 정월 보름 전에 느티나무제(祭)를 지내고 연초에 따로 마을 어구에 있는 장승제를 지낸다. 또 정월 돼지날을 택하여 담는 두견주(杜鵑酒)와 국화를 넣어 담은 백일(百日) 국화주(菊花酒)가 특색이 있다.

마을의 역사·문화적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다. 충남도에서 1978년 민속보존(民俗保存) 마을로, 1982년에는 민속관광(民俗觀光)마을로 고쳐 지정하고 1988년에는 국가가 다시 전통건조물 보존지구(傳統建造物 保存地區)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에서 보존하고 있다.





# 도지정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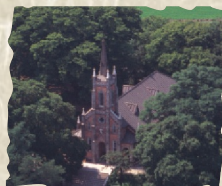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 온주아문 및 동헌 (溫州衙門 및 東軒)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호



- ◆ 지정년월일 : 1973년 12월 24일(아문)  
1990년 9월 27일(동헌)
- ◆ 위치 : 구 온양시 읍내동
- ◆ 수량 : 2동
- ◆ 규모 : 아문 - 정면 3칸 8m, 측면 3칸 4.70m  
동헌 - 정면 6칸, 측면 2칸
- ◆ 재료 : 목조
- ◆ 시대 :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온양군(溫陽郡)의 관아건물로, 낮은 남향의 아산을 배경으로 하여 문루(門樓)와 동헌(東軒)이 서 있다.

아문에는 「온주아문(溫州衙門)」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 신라 문무왕(文武王) 3년(663)에 군 이름을 온주라 하였으므로 그 대로 이름을 따서 붙인 듯하다. 아문 건축에서 흔히 보는 2층의 문루 건물로 아래층은 통로로 사용하고 위층은 누마루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듬은 장대석 한 벌을 깔아 만든 기단 위에 4각형의 기초석을 갖춘 높이 1.5m의 주형 초석(柱形 礎石)을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놓고 그 위에 둥근 기둥을 세워 누마루를 설치하였다. 마루의 4면에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을 돌렸고 아래층 기둥에는 화려한 초각(草刻)을 한 낙양을 붙였다. 전형적인 무출목(無出目) 2익공(翼工) 계통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둥 사이에는 운공(雲工)을 끼운 장화반(長花盤)을 가운데 3구, 양쪽에 2구씩 배치하여 주심도리(主心道里) 장혀를 받치고 있다. 종량(宗樑) 위에는 파연대공(波蓮臺工)이 있으며 합각(合閣) 밑에는 충량(衝樑)을



걸치고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다.

동헌은 아문에서 약 50m 북쪽에 서 있다. 조선시대 온양군 동헌으로 쓰이다가 1928년부터 일제의 주재소, 해방후에는 파출소로, 1986년 市 승격에 따라 1988년까지 온주동 동사무소로 2년간 사용되다가 1993년에 수리 복원하였다. 정면 6칸, 측면 2칸의 평면이며 잘 다듬은 장대석을 한 벌 쌓아 기단을 마련하고 담병 주초(柱礎)를 두고 그 위에 네모난 기둥을 세웠다. 장대석 일부는 다른 건물의 것을 전용(轉用)한 것도 있다. 공포는 무출목 초익공이며 보머리와 익공의 양편에는 초각(草刻)을 하였고 창방(昌枋)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둥사이에는 다섯 개의 소루를 놓아 주심도리(柱心道里)를 받치고 있다. 우물천장이며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아문은 고종(高宗) 8년(1871)에 중건된 건물이며 동헌은 여러차례 변형되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건물인 듯하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온양군 공해조에는 동헌(東軒) 10칸, 아사(衙舍) 23칸, 객사(客舍) 37칸, 무학당(武學堂) 3칸, 향청(鄉廳) 12칸등 건물이름과 칸수가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2동의 건물만 남아 있다.



## 여 민 루 (廬民樓)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17호



- ◆지정년월일 : 1973년 12월 24일
- ◆위치 : 구 온양시 영인면 아산리 426
- ◆수량 : 1동
- ◆규모 : 정면 3칸 7.20m, 측면 2칸 4.70m
- ◆재료 : 목조
- ◆시대 : 조선시대 후기

영인면 소재지인 아산리의 영인초등학교 담장에 접혀 세워져 있다. 아산의 누정(樓亭)가운데 유일한 현존 건물이다.

정이오(鄭以吾 1347~434)가 지은 여민루기가 전해지는데 여기에 의하면 1415년(태종 15) 아산현감 최안정(崔安正)이 건립하였다고 하며 ‘위민지려(爲民之慮)’의 뜻으로 누명(樓名)을 지은 것이다. 영조대에 제작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아산현 공해조에 '여민루 금폐(廬民樓 今廢)'라고 하므로, 현재의 건물은 영조대 이후에 건립된 것은 분명하나 정확한 건립시기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의 아산현 관아 입구에 세워졌던 문루(門樓)인데 동향한 낮은 기단 위에 4각형의 기초석을 갖춘 주형(柱形) 초석을 배열하여 그 위에 둥근기둥을 세워서 누(樓)마루를 설치하였다. 하층은 정면 3칸에 각각 문을 달아 통로로 사용하였으며 좌우 협간의 문미(門楣) 상부에는 홍살을 설치하였고 측면의 2칸은 판벽으로 막았다. 공포는 2익공인데 외출목은 없으며 처마 밑의 기둥사이에는 간략화된 화반형(花盤





形)의 초각반(草刻盤)을 중앙간(中央間)에 3개, 그 이외의 주간(柱間)에는 모두 2개씩 배치하였다. 지붕 가구(架構)는 앞뒤 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었는데 대들보 위에 소로를 두고 그 위에 뜬 창방을, 다시 이 뜬 창방 위에 주두를 놓아 종량(宗樑)을 받치도록 하였다. 종량 위에 있는 대공은 파연대공(波蓮臺工)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대공과 결구된 뜬 창방은 그 위에 있는 마루 도리와의 사이에 간단하게 장식된 초각반 3개를 배치하여 중간부분을 보강하고 있다. 천장은 연등 천장인데 합각 부분만은 그밑에 있는 충량(衝樑)에 의지하여 작은 우물천장을 가설, 그 이면이 노출되는 것을 가리고 있다.



## 세심사불설대보 부모은중경 판각 (洗心寺佛說大報 父母恩重經 板刻)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167호



- ◆ 지정년월일 : 1988년 9월 20일
- ◆ 제작년도 : 1563년
- ◆ 위치 :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
- ◆ 수량 : 목판 13매
- ◆ 크기 : 18.5cm × 14cm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영인산 중북에 위치한 전통사찰 제16호로(1988. 9. 20) 지정된 세심사는 신라 선덕여왕 14년(645)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찰인바 여지승람에는 동림사 신심사로 기록되어 있는 고찰이다.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67호로 지정된 세심사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판각은 "승가 결계도량 정제성현문집판각" 4매와 "부모은중경 판각" 13매는 조선명종 18년(1563)에 판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로 현존하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목판본을, 「전국사찰소장목판집(全國寺刹所藏木板集)」(문화재전위원 박상국 편저, 문화 재관리국, 1987)을 근거로 하여 조사하여 보면,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 세 판본이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세심사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간기(刊記)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인 1563년 가정사십이년, 계해, 청흥도



아산지 동림산 신심사 유판(嘉靖四十二年, 癸亥, 清洪道 牙山地 桐林山 神心寺 留板)에,  
둘째, 충청남도 공주시 갑사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간  
기(刊記)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인 1567년 룡경원년삼월일청홍도는진지불명산쌍계  
사유판(隆慶元年三月日清洪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留板)에,

셋째,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은 간기(刊記)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인 1575년 만력을해하해인사간도자성산이  
은복권선이성(萬曆乙亥夏海印寺刊道者星山李銀福勸善以成)에 조판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목판본 가운데에서 세심사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가장 먼저 조판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부모 은중경 판각」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길러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한 것이며 「승가 결계 도량 정제 성현 문집 판각」은 불교 의식을 기록한 경판으로 불교 연구는 물론 우리나라 인쇄사, 판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김옥균 선생 유허(묘소) (金玉均 先生 遺墟〈墓所〉)

### 충청남도 기념물 제 13-1호



- ◆지정년월일 : 1976년 12월 6일
- ◆위치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143
- ◆수량 : 1기
- ◆면적 : 565㎡
- ◆시대 : 최근세

한말의 풍운아 김옥균의 묘이다.

김옥균(1851~1894)은 조선말의 정치가로 자는 백온(白溫), 호(號)는 고균(古筠)이다. 김병태(金炳台)의 아들로 부사(府使) 김병기(金炳基)에게 입양하였는데 공주 정안면 출신이다.

당시 청나라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민씨(閔氏) 일파의 세도정치가 지나치게 수구적(守舊的)인데 불만을 품고 국제정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구파의 제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축한 우정국(郵政局) 청사의 낙성연을 계기로 거사를 감행하여 한규직(韓圭稷) 등 수구파를 제거하고 정변을 일으켰다. 이튿날 조직된 새 내각의 호조참판으로 국가재정의 실권을 잡았으나 갑신정변이 삼일천하로 끝나자 일본으로 망명, 10년간 일본 각지를 방랑한 후 1894년(고종 31) 상하이(上海)로 건너갔다가 자객 홍종우(洪鍾宇)에게 살해되어 시체는 본국으로 돌아와 양화진에서 능지처참되었다.





갑오경장으로 개화당내각이 조직된 후 총리 김홍집(金弘集)등의 상소로 반역죄가 용서되고, 1910년 규장각 대제학에 추증(追贈), 시호(諡號)는 충달(忠達)이다. 묘(墓)는 부부 합장묘로서 일본 동경 청산외인묘지(靑山外人墓地)에서 1914년 9월 11일 이곳으로 이장되었다.

묘역은 묘비와 석등, 석양, 망주석, 문인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비에는 "고군 거사 안동김공옥균지묘 배정경부인사계유씨부좌(古筠居士 安東金公玉均之墓 配貞敬夫人祀溪俞氏附左)"라 새겨져 있다.

## 아산 공세곶고지 (牙山 貢稅 串庫址)

### 충청남도 기념물 제21호



- ◆ 지정년월일 : 1979년 7월 3일
- ◆ 위치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 ◆ 면적 : 15,636㎡
- ◆ 시대 : 조선시대 초기

이곳에 공세곶창(貢稅串倉)이 시작되기는 조선 성종 9년(1478)에 면천(沔川) 범근내포(犯斤乃浦)의 것을 폐지하고 이곳으로 정하고 부터이다. 현재 창고지 주변에 축조한 성지(城址)가 약 300칸이나 남아 있는데 다만 창지(倉址)만이 알아 볼 정도이다.

조운(漕運)이란 근대사회 이전에 국가가 국민에게서 조세로 징수한 미곡 등을 선박(船舶)으로 운송하던 제도이다.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조세(租稅)도 미곡, 잡곡, 면포, 마포 등 현물로 조달되었다. 주로 미곡이 세납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대규모의 운송 작업이었다. 조세로서 징수되는 미곡은 그 물량이 많았을 뿐 아니라 하중(荷重)에 있어서도 매우 무거웠다. 게다가 근대사회 이전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도로가 불편하여 세곡과 같은 하중이 무겁고 물량이 많은 화물을 육운(陸運)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바다와 하천을 이용하여 화물을 옮기는 뱃길을 고안해냈다. 즉, 전국 각지에서 고을



단위로 징수한 세곡을 그 인근의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한 창고에 모아 두었다가, 일정한 시기에 선박에 실어 서울로 운반하였다. 이 때 세곡을 실어나르는 선박을 조선(漕船)이라 했고, 조선이 항해하는 뱃길은 조운로(漕運路)라 하였으며, 아산의 공세창(貢稅倉)과 같이 조선이 출발하는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한 창고를 조창(漕倉)이라 했다.

최초에는 창고가 없이 노적하였으나 중종 18년(1523)에 비로소 창고 80칸을 건축하였다. 이곳에는 공주목 이하 임천, 한산, 전의, 정산, 은진, 회덕, 진잠, 연산 이산(노성), 부여, 석성, 연기 등 12군현의 세미(稅米)와 홍주목(洪州牧) 이하 서천, 서산, 태안, 면천, 온양, 평택, 홍산, 덕산, 청양, 대흥, 비인, 남포, 결성, 보령, 아산, 신창, 예산, 해미, 당진 등 19군현의 세미(稅米)를, 그 외 청주목(淸州牧) 이하 천안, 옥천, 문의, 직산, 회인 등 6개현의 공세미(貢稅米) 등 합계 39개 목(牧)·군(郡)·현(縣)의 것을 납고(納庫)시키고 다시 경사(京師)로 수로(水路) 500리 길을 선박(船舶)으로 조운(漕運)하였다. 그리고 해운판관(海運判官)을 두었다. 현재 해운판관비로 서 있는 것은 6개인데 비(碑) 전면은 삼도해운판관비(三道海運判官碑)라고 쓰여 있다.



## 배방산성 (排芳山城)

### 충청남도 기념물 제 67호



- ◆ 지정연월일 : 1988년 8월 30일
- ◆ 위치 : 아산시 배방면 신흥리 · 송수리 산19, 산49
- ◆ 면적 : 95,108㎡
- ◆ 재료 : 석축
- ◆ 시대 : 백제시대

천안과 온양간의 국도 남쪽 표고 250m의 성재산에 있는 테피식 산성이다. 길이 약 1,500m이며 석축으로 이루어진 석성 이다. 대부분 무너져 돌무지만 보이나 성의 남쪽에 남아 있는 길이 15m정도의 석축에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사용한 석재는 두께 약 12cm, 길이 50cm 정도의 자연할석을 앞면만 다듬어 성벽을 쌓았다. 적심의 단면을 보면 토사를 섞지않은 석재.잡석을 이용하여 너비 3~4m에 약 40단(현재 남은 부분)을 모두 길이 모 쌓기로 하였다. 성벽은 하단보다 상단을 약간 내경(內傾)하도록 하였는데 복원 높이는 5~6m정도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배방산성의 둘레가 3,313척이고 높이가 13척이며, 성안에 2개의 우물과 군창(軍倉)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현재에도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이 여러곳에서 보이며, 성내에서 백제시대 토기편들이 흩어져 있어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인 듯하다.

백제 개로왕 원년(445)에 성배(成排)와 성방(成芳)이라는 쌍둥이 남매를 거느린 공





수(公須)란 7순노파(旬老婆)의 전설에서 배가 방에게 무릎을 꿇었다해서 두 남매의 이름을 따서 배방산 복부성(伏俯城)이라 했다는 전설이 있고 또 형태가 솥을 엮어놓은 듯하다해서 복부성(伏釜城)이라 하기도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쌓았다고 한다.

## 신 창 향 교 (新昌鄉校)

### 충청남도 기념물 113호



- ◆지정년월일 : 1997. 12.23
- ◆위치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320-3
- ◆수량 : 5동
- ◆재료 : 목조와가
- ◆시대 : 조선

신창향교는 온양에서 예산방면으로 연결되는 45번 국도를 따라 약 8km를 가면 도로변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창초등학교의 교정내에 있다. 이 향교의 창건연대와 변천사에 대해서는 자료의 미비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다. 조선 숙종조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불확실하며, 1872년(고종 9)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건되었다는 설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신창현 학교조에서 향교의 위치를 본현 북쪽 2리 지점으로 밝히고 있는 점(현존 향교의 위치와 일치)을 고려하면 수궁하기 어렵다.

1872년에 신창현감(新昌縣監) 왕경렬(王景烈)이 도고면(道高面) 석적곡(石積谷)의 진주사(塵主寺)를 이관하여 설립하였다는 설은 향교의 창건이 아니고 진주사의 석재들은 옮겨서 향교를 보수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

현재 신창향교에는 대성전에 오성(五聖)과 송조이현(宋朝二縣) 및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신창향교는 신창초등학교의 교정내에 있는데, 해발 184m의 학성산 동편산록 경



사면에 동남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향교의 건물배치를 살펴보면 위쪽에 대성전이 있고 내삼문·명륜당이 대성전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墓) 형식이다. 동·서 양재는 내삼문과 명륜당의 사이 양편에 위치하고 있고, 이상의 대성전과 명륜당 동·서 양재는 담장으로 에워싸여 있다. 명륜당과 홍살문 사이는 초등학교의 운동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삼문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건물의 규모는 대성전 31평 명륜당 18평 동재 15평 서재 13평 관리사옥 18평이다. 이중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며 익공양식으로 가구하였다. 시멘트로 구축된 기단 위에 원형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주를 세웠다. 전면의 좌우 측면에는 중방하에 격자문의 창문을 설치하였으며 중앙 3칸에는 각각 2분합의 격자문을 시설하였다. 창방 위에는 화반대 공을 하나씩 놓아 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처마 측면에는 벽을 보호하기 위한 방풍판을 설치하고 중방하에 반담을 시설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막돌허튼층쌓기로 구축한 기단 위에 거칠게 다듬어진 방형의 초석위에 원주를 세웠다. 기단과 창방사이에는 고맥





이와 함께 하방 중방 인방을 가구하였으며 전면의 좌우 측면은 4분합의 띠살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중간 3간은 중방위에 창문을 설치하고 어간의 처마 밑에는 명륜당이란 현판을 걸었다. 처마는 홀처마로 도리식으로 가구하였다. 건물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소장 전적으로는 홀기 6종등 몇권의 시문집이 있다.



## 아 산 향 교 (牙山鄉校)

충청남도 기념물 제114호



- ◆지정년월일 : 1997. 12. 23
- ◆위치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 ◆수량 : 5동
- ◆재료 : 목조와가
- ◆시대 : 조선

牙山鄉校는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의 영인면사무소에서 서쪽으로 약 6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이는 영인산의 북쪽 골짜기에 해당한다. 아산향교의 창건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아산의 연혁을 보면 여말선초까지는 감무(監務)가 파견되다가 조선 태종 13년에 비로소 현감(縣監)을 설치하였고, 세조 5년부터 11년까지는 아산현(牙山縣)이 폐지되고 주변의 온양(溫陽) 신창(新昌) 평택(平澤)등 세 고을로 분할 이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선초에 향교가 설립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아산현 학교조에 향교가 본현의 동쪽 2리되는 지점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된 중종이전에 향교가 설립되었음을 추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되어 있는 향교의 건물이 오늘날 현존하는 향교는 아니다. 왜냐하면 현존향교의 위치는 아산현 관아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산향교측에서는 현존향교가 1575년(선조 8)에 당시 아산현감으로 재직



하고 있던 토정(土亭) 이지함이 아산리 동쪽 구향교골에 있었던 것을 이진한 것이라고 한다. 1819년에 간행된 「신정아주지(新訂牙州志)」에서는 토정 이지함이 아산향교를 이진한 시기가 만력(萬曆) 경술년(庚戌年 1610년, 광해군 2)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지함의 몰년이 1578년(선조 11)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착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 향교 이진후 1610년에 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를 중건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착종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신정아주지」에 의하면 1819년 여름의 폭우로 향교가 심하게 훼손된 것을 현감 윤정식의 노력으로 대성전을 수리·보수하고 홍살문을 새로 세웠다고 밝히고 있다. 그 후 이 아산향교는 1864년(고종 1)에 중수하였다.

현재 본향교 대성전에는 오성(五聖)과 송조사현(宋朝四賢)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으며 공자 탄강일인 음력 8월 27일에 기념행사를 거행해오고 있다.

아산향교는 영인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배치는 북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강학공간인 명륜당이 전면에 있고 제향공간인 대성전이 후면에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墓)의 배치형식이지만 방위상으로는 대성전이 남쪽에 명륜당이 북쪽에 위치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북향배치는 대성전 안에 위패배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동무와 서무가 각각 방위상으로는 서쪽과 동쪽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동재 또한 명륜당의 서쪽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향교의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으며 이어 외삼문과 담장이 명륜당 동재 대성전 등을 감싸고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 사이에 내삼문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다른 향교와 다른점이 없다. 그러나 명륜당과 대성전이 일직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외삼문과 명륜당만 일직선상에 놓여 있고, 다시 명륜당의 서쪽에 있는 동재가 내삼문 대성전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이와같은 건물배치는 산지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으로 풍수설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향교건물의 규모는 대성전 21평 명륜당 12평 동재 9평 기타건물 3동 30평이다. 이중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의 건물이며 익공양식으로 가구하였다.



장대석을 이용하여 기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원형의 주초석을 놓았으며 원주를 세웠다. 문은 전면에만 시설하였는데 각각 2분합의 띠살문을 달았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측면에는 벽을 보호하기 위한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막돌 호트려쌓기로 구축한 기단 위에 원형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주를 세웠다. 기단과 창방 사이에는 고맥이와 하방, 인방이 가설되어 있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가구양식은 도리식이다. 이 아산향교는 현재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단장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 온 양 향 교 (溫陽鄉校)

### 충청남도 기념물 제115호



- ◆지정년월일 : 1997. 12. 23
- ◆위치 : 구 온양시 읍내동 209
- ◆수량 : 5동
- ◆재료 : 목조와가
- ◆시대 : 조선

온양향교는 온양에서 공주방면으로 연결되는 39번국도의 동쪽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창건연대와 창건당시의 위치 및 중간의 변천사 등에 대해서는 문헌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온양의 연혁을 보면 고려전기(현종 이후)에는 천안부(天安府)의 임내(任內)였고 명종 2년(1172)부터 감무(監務)가 파견되다가 조선 태종조에 비로서 현감(縣監)이 파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태종 14년에 신창현(新昌縣)과 병합되어 온창현(溫昌縣)으로 고쳐져 현감이 파견되기 시작하다가 태종 16년에 다시 신창현과 분리 되면서 온수현(溫水縣)이 되었고 이어 세종 14년에 세종이 온천에 거동하면서 온양군(溫陽郡)으로 승격됨, 향교의 설립도 조선 태종조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온양군 학교조에 향교의 위치가 읍의 서쪽 1리 지점에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중종조 이전에는 향교가 설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지의 구전에 의하면 온양향교는 원래





현존 위치인 읍내동에 인접한 법곡리(능피)에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1610(광해군 2)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하는데, 문헌자료를 통한 고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 온양향교 대성전에는 오성(五聖)과 송조이현(宋朝二縣) 그리고 우리나라 18현(縣)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현재 향교부지는 1,945평으로 주변은 아파트와 과수원과 민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존건물은 1982년에 전면 보수한 것이다.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향교의 건물배치는 외삼문·명륜당·내삼문·대성전이 남북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墓)의 형식이다. 향교 진입로의 우측에 하마비가 있고 이어 1982년에 건립된 홍살문이 있으며, 명륜당과 동재 대성전은 내·외삼문과 담장으로 둘러쌓여 있다. 서재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향교건물의 규모는 대성전 19평 명륜당 20평 동재 11평 기타 건물 4동 22평이다.



이 중 대성전은 중층기단위에 만들어져 있는데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한 익공식의 형태다. 기단은 막돌허튼층 쌓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자연초석 및 원형초석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초석 중에는 재사용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석 위에는 배흘림의 원주를 세웠다. 건물의 전퇴간은 고주와 평주가 퇴량에 의해 결구되어 있다. 정면의 3칸은 모두 궁창판이 있는 2분합문의 띠살창호로 만들어져 있으며 좌우 측면은 회와 돌을 섞어 만든 반 담이 설치되어 있다. 배면은 회사벽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박공 밑에는 방풍판이 설치되어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한 도리식 건물이다. 화강암으로 된 중층의 기단 위에 자연초석이 놓여 있고 그 위에 배흘림의 원주가 세워져 있다. 어간은 4분간의 띠살문으로 되어 있으며 상인방 위에는 명륜당이란 판액이 걸려 있다. 좌우의 협간은 2분합문으로 역시 띠살문이며 측간의 경우는 중앙 3칸보다는 작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간에는 각각의 장방형의 섬돌이 설치되어 있다. 측면은 회사벽으로 되어 있으며 배면의 경우 어간과 협간에만 창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들은 2분합문의 궁창판이 있는 띠살문으로 만들어져 있다. 온양향교에는 현재 전적과 고문서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소수의 소장도서는 모두 최근에 수집된 양장도서들이다.

## 아산 공세리 성당 (牙山 貢稅里 聖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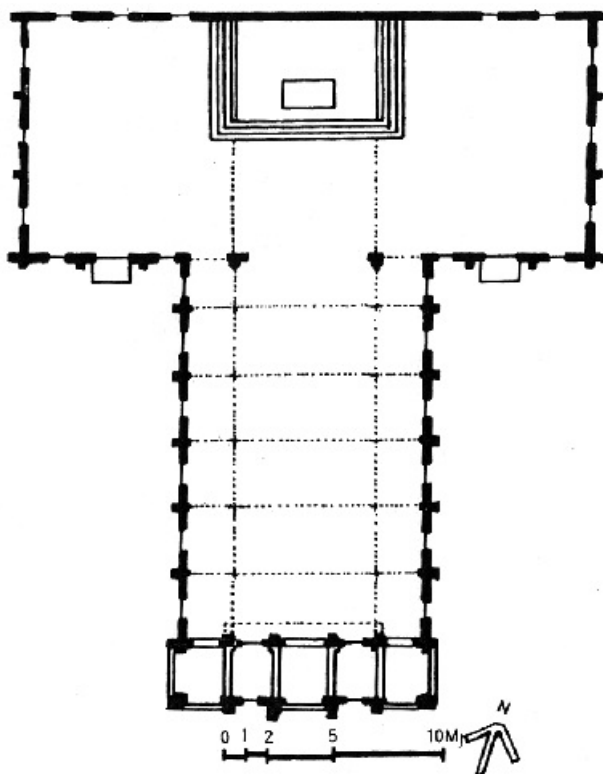
### 충청남도 기념물 제144호



- ◆지정년월일 : 1998. 7. 25
- ◆위치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194-1
- ◆수량 : 1곽(2동)
- ◆재료 : 조적조와가, 조적조, 동판
- ◆시대 : 최근세

아산만(牙山灣)과 삼교천(插橋川)을 잇는 인주면(仁州面) 공세리(貢稅里) 언덕 위에 세워진 천주교 대전교구(天主教 大田教區) 소속의 본당(本堂)이다. 초기 선교사들이 이곳 포구(浦口)에 상륙하여 전교(傳敎)를 시작한 첫 전교지임을 기념하여 1894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곳 공세리는 조선조때 아산(牙山), 서산(瑞山), 한산(韓山)을 비롯하여 멀리 청주(淸州), 옥천(沃川) 등 40개 고을의 조세(租稅)를 쌓아 중앙에 올리던 공세창고(貢稅倉庫)가 있던 곳이다. 처음 교회는 동네 가운데 민가를 사용했으나 공세창(貢稅倉) 자리에 구분당이 1897년에 세워졌고 지금의 본당은 1922년 9월 10일 준공낙성되었다. 공세리 성당은 충청남도 최초의 본당으로 여기에서 공주본당(1897), 안성(1901), 온양(1948), 둔포(1976) 본당이 분할되었다. 방조제(防潮堤)공사로 바다는 훨씬 밖으로 나아가 있다. 경내(境內)에는 본당과 사제관, 피정의 집, 회합실 및 창고건물이 있으며, 병인박해(1866년)때 순교한 3인의 묘소(墓所)가 갯모리로부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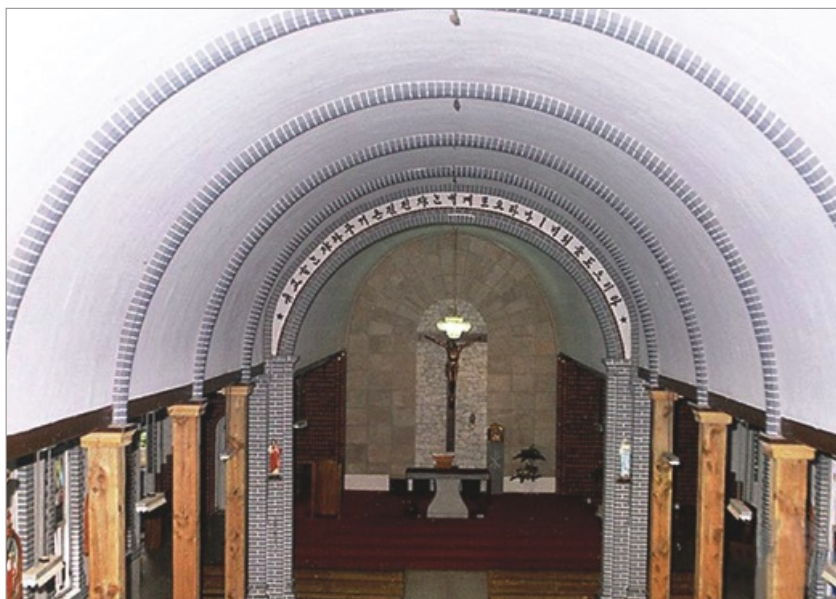


「공세리 천주교 성당 평면도」

장되어 경내에 있다.

건축구조 양식은 FACADE(전면부위)에 삼랑식(三廊式)의 홍예와 높은 종탑(鐘塔)(높이 19.5m)을 세운 네오고딕(Neo-Gothic) 양식(樣式)의 절충형(折衷形) 건물이다. 성당건물은 원래 적벽돌 조적조(組績造)의 삼랑식 장방형(三廊式 長方形) 건물로 Nave와 Aisle부분이 목조기둥에 의해 구획(區劃)되었으나 목조기둥을 주두(柱頭)부분에서 절단하여 제거하고 Transept 부분을 증축하여(1970년), 현 건물은 평면 T자의 S. Antony Cross형이다. 외벽에는 각 Bay마다 Buttress(불임기둥)가 내외부로 돌출되고 Nave의 천정은 반원형 Barrel Vault로 각 Bay마다 목재 Rib가 표출되었다. 천정과 내벽이 Plaster마감인데 비해 Aisle 부분과 증축된 Transept는 목조 평천정판을 그대로 노출되었고, 내부와 종탑부의 기둥은 회색벽돌이다.





## 아산 연엽주 (牙山 蓮葉酒)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 11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12월 31일
- ◆위치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88
- ◆기능보유자 : 최광규(崔晃圭) · 여  
1943. 10. 27생
- ◆보유종별 : 양조비법

외암리 마을에 살고 있는 예안 이씨(李氏) 가문에서 익혀 내려온 양조기술에 대한 지정이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예안 이씨들이 살고 있었는데 현재 이득선(李得善)의 고조인 이원집(李源集, 1829~1879)이 쓴 「치농(治農)」이라는 필사본에 연엽주의 제조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이 집안의 후손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양조기술을 익혀왔다.

종부(宗婦)사이에 제조기술이 전수되어 손님접대나 제주(祭酒)를 위해 술을 빚었다. 이 양조법이 정확히 언제부터 빚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만드는 방법은 뽕쌀 7.2kg과 찹쌀 1.8kg을 섞어 술밥을 만들어 식힌 후 누룩 4.5kg을 버무린다. 항아리를 불길로 바싹 말린 후 항아리에 먼저 연잎 500g을 넣은 다음 버무린 술밥을 넣고 깨끗한 지하수 18리터를 붓는다. 술을 만든지 30일 지난 후 용수를 박아 술을 뜨는데 약 대두 한 말의 술을 얻을 수 있다.

연꽃잎을 넣어 독특한 향기를 내므로 연엽주라고 한다 .





## 윤일선 가옥 (尹日善 家屋)

###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 12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11월 19일
- ◆위치 :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2
- ◆수량 : 2동
- ◆재료 : 목조 기와집
- ◆시대 : 조선시대 말기

윤보선(尹潽善) 전대통령 생가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윤씨 일가가 공동으로 쓰는 솥을대문을 이용하여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ㄱ" 자형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가 어우러져 튼 "ㅁ"자의 평면구도를 갖고 있다.

안채는 통칸으로 된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하여 한쪽에 안방과 부엌이 있고 다른 쪽에 건넌방이 있는데 건넌방은 대청보다도 훨씬 높은 뒹마루를 두어 변화 있게 구성하였다. 사랑채에는 일부 장대석 기단도 남아있는데 지붕은 입작(入作)지붕이다. 기둥을 비롯한 재목들이 전반적으로 가늘지만 각 방들이 비교적 넓게 꾸며져 있어 조선말 한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부지방의 양식을 갖고 있는데 1900년경 윤치경이 지었다 하나 상량문(上樑文)에는 순정기원후 사갑진십일월이십팔일(崇禎紀元後 四甲辰十一月二十八日)로 적혀 있어 1844년에 초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솥을대문에는 대한 광무(光武) 9년의 기록이 있어 1905년에 건축된 듯하다.





## 윤제형 가옥 (尹堤亨 家屋)

###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 13호



- ◆ 지정년월일 : 1986년 11월 19일
- ◆ 위치 :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21
- ◆ 수량 : 3동
- ◆ 재료 : 목조 기와집
- ◆ 시대 : 최근세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등 윤씨 일가들의 고택이 모여 있는 곳에 있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솟을대문을 통하여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가 어우러져 튼 "ㄷ"자형의 평면구도를 갖고 있어 중부지방 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안채는 "ㄱ"자로 꺾어지는 툇마루를 두어 각 방을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다. 사랑채는 잡석 기단을 쌓고 전면 왼쪽 3칸에 툇칸을 두어 마루를 깔았는데 여기에서는 두루 주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꾸몄다. 기둥은 네모기둥을 썼는데 부재가 가늘고 기둥간격을 넓게 잡아 빈약한 느낌을 준다. 이런 기법은 시대가 내려오는 시기의 건축방법이다. 헛간채가 사랑채와 안채와 이루는 "ㄷ"자형 구획 바깥에 서 있다.

1900년경 윤경선이 건립한 가옥이다.





## 아산 윤승구 가옥 (牙山 尹勝求 家屋)

###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 15호



- ◆지정년월일 : 1989년 12월 31일
- ◆위치 :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24-1
- ◆수량 : 3동
- ◆규모 : 문간채, 행랑, 안채
- ◆재료 : 목조건축
- ◆시대 : 조선시대

신항리 해평 윤씨 일가들이 지었던 가옥중의 하나로 종가택으로 지칭된다.

남으로 발달한 낮은 언덕 위에 윤씨네 집들이 촌락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솟을대문을 지나면 작은 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는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 생가(중요민속자료 제196호)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윤일선(尹日善) 가옥(도지정 민속자료 제12호)이 있으며 이 가옥과 인접해서 윤승구 가옥이 있고 더 위에 윤제형 가옥(도 지정 민속자료 제13호)과 일군을 이루고 있다.

제일 앞에는 남향하고 있는 문간채가 있다. 한식기와집인데 정면 3칸, 측면 3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그 옆으로 중문이 달린 정면 3칸, 측면 1칸의 행랑이 달려 있다.

중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보이지 않도록 문간채의 끝에 맞추어 담장을 쌓았는데 이 담장을 왼쪽으로 돌아가면 안마당에 이른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형 평면이다. 중앙부분에 2칸통의 넓은 대청





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1칸의 건넌방, 왼쪽으로는 2칸의 안방을 들였고 안방 앞으로 1칸의 부엌을 들였다. 또 안채의 왼쪽 담장 너머에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홀 처마 팔작지붕의 사랑채가 있다.

대체로 잘 손질한 장대석(長臺石)을 이용하여 기초를 마련하였고 기둥은 네모기둥을 썼으며 기둥의 윗부분에는 공포를 모두 생략하여 간결한 구조를 하고 있다.

상량문(上樑文)에 승정기원후 사갑신 십일월 초하루(崇禎紀元後 四甲辰 十日月 初一日)라는 기록이 있어 이 집이 1844년에 건립된 사실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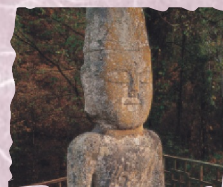




문화재  
자료









## 온천리 석불 (溫泉里 石佛)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27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위치 : 구 온양시 온천동 229
- ◆수량 : 석불 1구
- ◆재료 : 화강석
- ◆시대 : 조선 후기 추정

조선 후기의 불상으로 추정되며 1927년경 신창면내에 파손되어 산재해있던 것을 수습하여 온양관광호텔에 옮겨 모셨다.

높이 84cm의 좌불로써 둥근 얼굴에 법의는 통견이며 수인은 두손에 무엇을 들어 마주 쥐고 가슴위까지 올리고 있는 형상으로 승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 영괴대비 (靈槐臺碑)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28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위치: 온양시 온천동 온양관광호텔 내
- ◆수량: 비각 및 석비 각 1기
- ◆규모: 높이 103cm, 폭 45cm, 두께 23.5cm
- ◆시대: 조선

영괴대(靈槐臺)는 1760년(영조 36) 8월에 영조(英祖)가 온양의 온궁(溫宮)에 행차했을 때 장헌세자(莊獻世子), 즉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따라와 무술을 연마하던 사장(射場)이다. 당시에 장헌세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온양군수 윤염(尹琰)에게 명하여 사장(射場)에 3그루의 느티나무를 심게 하였으며, 정조(正祖) 19년(1795)에는 온양군수(溫陽郡守) 변위진(卞緯鎭)과 충청도(忠淸道) 관찰사(觀察使) 이형원(李亨元)에 의해 나무 둘레에 길이 15척(尺), 너비 12척(尺) 5촌(寸), 높이 3척(尺) 1촌(寸) 크기의 대(臺)가 만들어졌다. 공사가 끝난 후 관찰사(觀察使)가 조정(朝廷)에 장계(狀啓)하자 정조(正祖)는 대(臺)의 옆에 비석을 세워 그 사적(事蹟)을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영괴대비(靈槐臺碑)이다.

비는 정면에 영괴대(靈槐臺)라고 정조(正祖)가 어필(御筆) 하였으며, 후면에는 어제영괴대명(御製靈槐臺銘)을 윤염(尹琰)의 아들 윤행임(尹行恁)이 서(書) 하였다.







## 주필신정비 (駐蹕神井碑)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29호



-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 위치 : 구 온양시 온천동 온양관광호텔내
- ◆ 수량 : 비각 및 석비
- ◆ 규모 : 높이 56.5cm, 폭 38cm, 두께 1cm
- ◆ 재료 : 목조와가 및 석비
- ◆ 시대 : 조선

이 비는 세조가 1468년(세조 14)에 충청도를 순수(巡狩)하고 속리산 복천사(福泉寺)를 거쳐 환도(還都)하다가 온양에 주필하고 있을 때 온천(溫泉) 곁에 있는 냉천(冷泉)을 발견하고 이를 신정(神井)이라고 칭한 것을 기념하여 성종 7년(1476)에 건립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온탕(溫湯)이 있던 온양(溫陽)에는 국왕의 행차가 자주 있었으며, 그 때문에 온궁(溫宮)이 건립되기도 하였는데, 세종(世宗) · 세조(世祖) · 현종(顯宗) · 숙종(肅宗) · 영조(英祖) 등이 온천을 다녀갔다.

비는 장방형의 대리석 위에 화강암으로 세워져 있는데, 비문은 중추원부사 임원중(林元濬)이 찬(撰)하고, 절충장군 이숙감(李淑臧)이 서(書)하였으나 대부분이 마멸되어 상당 부분의 판독이 불가능하다.



## 이충무공 사적비 (李忠武公 史蹟碑)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0호



-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 위치 : 구 온양시 온천동 온양온천역 광장
- ◆ 수량 : 비각 및 사적비
- ◆ 재료 : 목조와가 및 석비
- ◆ 시대 : 1951년

충무공 이순신(1545-1598)장군의 업적을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세운비로 온양온천역 앞에 있다.

비각은 정면 1칸, 측면1칸의 팔각지붕을 한 건물이며 비석은 화강암의 귀부위에 서있다.

1951년 이충무공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국민의 성금으로 이 비를 세웠다.

비문은 정인보가 짓고 김충현이 썼으며 현판은 이시영 전 부통령이 썼다.

비문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임진란때 전장에서 왜적과 싸운 내용을 담고 있다.







## 세심사 다층탑 (洗心寺 多層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1호



-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 위치 :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 ◆ 수량 : 석탑 1기
- ◆ 시대 : 미상(고려시대 추정)

세심사는 본래 신심사(神心寺)였던 절로 현재 조계종의 말사(末寺)로서 아산시에 서 비교적 영산으로 알려진 영인산의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세심사에 관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아산군의 지리를 기술한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서에 그 내용을 적고 있어 이 사찰이 비교적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사찰에 대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나 혹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모두 세심사(洗心寺)가 아닌 신심사(神心寺)라 적고 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사찰은 본래 신심사로 존재하였었지만 최근에 세심사로 개칭된 것으로 전한다. 더불어 현존의 건물은 종전의 사지위에 새로이 조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가람배치속에 석탑의 위치를 보면 대웅전의 정면 남쪽인 대지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석탑은 대웅전의 중심축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이다.

석탑은 이층(二層)의 기단부와 구층(九層)의 탑신부 그리고 상륜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총 높이가 390cm로 측정되며 기단부는 170cm로서 탑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기단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그런데 이 석탑은 일부가 1956년에 새로이 제작하여 추가한 것으로 전하고 있어 본래의 탑형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탑의 조성재료를 보면 기단의 경우 새로이 첨가한 부분은 모두 화강석을 다듬은 것이지만 이외 갑석이나 중대석은 청석(靑石)으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탑신부는 모두 화강석으로 만들어 이 석탑은 석탑의 조성재료로 청석을 사용한 보기 드문 예에 속한다.

탑의 세부내용을 기단부부터 보면 기단은 전체가 이단(二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탑의 세부적 결구(結構)법에서는 이질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후대에 탑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석재를 채웠기 때문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하층기단을 보면 화강석으로 3단을 이루고 있는데 최하층은 한변 140cm에 높이는 15cm로 이 부분은 지대석을 겸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중간은 너비 120cm에 높이는 28cm이고 맨 윗부분은 너비 100cm에 높이는 28cm정도로써 이 하층기단의 구성은 하단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규모가 20cm씩 체감되는 형태로 전체 높이 약 70cm정도를 올리고 있다. 이 하층기단의 화강석 결구(結構)는 4매의 화강석을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한면에 하나의 우주(隅柱)만 형성되는 형상을 취하고 있을 뿐 별다른 조각이나 장식이 없다.

하대갑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석으로 8cm 높이의 간석(間石)을 올리고 있는데 이 석재는 네면을 고풍으로 부드럽게 몰당한 상태이다. 이 청석 위에는 복련이 조각된 연화대석을 두었는바 이 연화대석은 석탑의 기단에서 갑석의 역할로 보아지는 바 한 변의 너비가 70cm의 방형이고 15cm 두께이다. 더불어 연화대석은 부판(復瓣)의 연화문(蓮花文) 사이에 삼각형의 간판(間瓣)이 조각되어 있고 대석(臺石)의 상단(上端)은 각형(角形)으로 두단을 조출(造出)하여 받침석을 표현하고 있다.

연화대석 위에는 상층기단의 중대석에 해당하는 결구(結構)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하에 두께 8cm에 네면을 고풍(孤形)으로 처리한 석재를 두고 가운데에 우주(隅柱)가 표현된 면석을 1매석으로 꾸미고 있는바 이 부분의 전체 규모는 높이 42cm정도이고 너비는 연화대석의 상단과 같은 형태이다.



상층기단의 갑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화대석을 장고형의 형태로 양(仰), 복련(伏蓮)을 이루게 올리고 있는데 양, 복련을 꾸민 석재는 각기 별석(別石)이고 너비는 각기 70cm의 방형이며 중간에 8cm정도의 간석을 끼우고 있다.

탑신부는 옥신석이나 옥개석을 각기 1매석으로 조성한 것이다. 옥신석은 모두 우주(隅柱)를 모각(模刻)하고 있으며 옥개석은 2단의 층급 받침을 두고 있는데 낙수면의 경사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고 아울러 전각의 반전이 심한 상태이다. 이 탑신부의 구성은 전체 탑이 구층임에도 체감율이 크지 않은데 다만 탑의 규모가 작아 전체적 조화는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상륜부는 최근에 새로 조성하여 올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형의 점판암을 여러개 겹쳐 올린 것으로 최상단은 보주형을 하고 있다.



## 관음사 석탑 (觀音寺 石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2호



- ◆지정년월일 : 1984. 5. 17
- ◆위치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관음사
- ◆수량 : 석탑 1기
- ◆시대 : 고려시대(추정)

아산리에는 최근에 새로이 조영된 사찰로서 관음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사찰은 본래의 사지위에 조성된 것으로 대웅전이 북향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으며 대웅전의 전면에 3층 석탑이 있다. 이외 석조여래 입상이 요사채 인근의 느티나무 아래에 남아 있기도 하다.

대웅전 정면에 자리하고 있는 석탑은 본래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 석탑은 본래 현재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10여m의 거리에 자리하고 있던 것을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관음사 3층석탑은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탑은 기단부와 탑신부만 남아 있고 상륜은 완전히 결실되었는바 이 탑을 삼층으로 확인하는 것이나 기단의 형태는 현재의 잔존 상태에만 근거하는 것이다.

탑의 총 높이는 255cm이다. 이중 기단부는 115cm이고 탑신부는 140cm만 잔존한 상태이고 상륜부가 완전히 결실된 것과 기단의 잔존상황을 고려하면 탑은 이보



다 훨씬 규모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의 세부형태를 우선 기단부터 보면 탑의 맨 밑부분에서 지대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석재는 마치 갑석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로 묻혀 있는 부분은 확인이 어렵지만 상면은 낙수면이 있고 그리고 상대중석을 받치는 2단 조출(造出)의 받침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1매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변이 150cm의 방형석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이 지대석 역할을 하는 석재에 의하면 이 탑은 기단부가 이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대석의 위에는 상대중석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높이 65cm의 판석으로 결구(結構)되어 있는바 장변의 석재에는 우주(隅柱)를 모각(模刻)하고 그 사이에 단변의 석재를 끼워 결구(結構)하여 장변석재의 모서리가 또 다른 우주(隅柱)의 역할을 창출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이중 단변의 석재 1매는 결실되어 있어 내부가 드러난 상태이다.

상대갑석은 1매석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단에 층급 형태의 완만한 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윗면도 아래면과 같은 형태로 조출(造出)하여 완만한 낙수면 그리고 옥신받침을 조출(造出)한 것이다. 이 갑석은 한변이 너비 140cm이며 두께는 22cm이다. 이 갑석의 상단에는 양화의 형태로 옥신받침을 두고 있다. 이 받침석은 마치 옥개석을 거꾸로 놓은 것인데 두께는 약 10cm내외로서 얇은 형태이다. 탑신부는 3층의 옥개석과 옥신석이 각기 별석(別石)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층의 옥신은 네귀통이에 우주(隅柱)를 모각(模刻)하고 이외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이다.

옥개석은 3단의 층급받침을 표현하였으며 낙수면의 경사가 심하고 처마의 전각반전은 미미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탑신부는 옥신에 비해 옥개의 크기가 작게 표현되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체감울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의 탑 구성은 정교하다고 볼 수는 없다.





## 관음사 석조여래불상 (觀音寺 石造如來佛像)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3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위치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관음사내
- ◆수량 : 석불 1구
- ◆시대 : 고려시대 (추정)

관음사는 영인산의 동향면에 위치하고 있는 절로서 아산향교에서 남쪽으로 약 800m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관음사라는 현존사찰은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현존의 사역(寺域)을 포함한 주변의 밭으로 개간된 부분 등 약 600여평의 면적이 오래 전에 사찰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현재의 관음사는 남단에 대웅전이 북향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는바 대웅전은 민가형 건물구조이고 대웅전의 전면에 3층 석탑이 있고 그 서쪽으로 요사채로 사용하는 건물이, 석조여래 입상이 느티나무 아래에 동향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이 석조여래 입상은 1매의 화강석에 광배(光背)를 표현하고 그 앞에 석조여래 입상을 조각한 것인데 하단에는 연화대좌(蓮花臺座)를 표현하기도한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그러나 불상이 자리한 지역이 본래 불상이 위치하고 있던 곳인가는 의문이 있다.

석조여래입상은 광배를 포함한 전체의 높이는 320cm인데 이중 하단의 연화대좌



는 40cm의 높이를 지니고 있는바 광배의 총 길이는 280cm인 셈이다. 여래입상은 180cm의 높이로 조성되어 있다.

조상형태(造像形態)는 후면에 화강석 전체가 주형(舟形)의 광배(光背)를 이루도록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중간부의 너비는 105cm 정도로 꾸몄는바 불신이나 불두(佛



頭)와 관련된 두광(頭光)이나 신광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감지되나 마멸로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단지 화염의 형태만 감지될 뿐이다.

하단의 연화대좌는 양연(仰蓮)의 형태로 이중(二重) 복연(伏蓮)을 배치하고 있는데 연화자체가 선은 굵으나 모두 선각으로 처리하여 풍만한 감은 없다.

불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세장된 느낌을 주는 것이다. 불두(佛頭)는 비교적 균형이 잡힌 형상으로서 머리에 나발(螺髮)은 뚜렷하지 않지만 육계가 적당하게 솟아 있으며 상호는 미간에 비교적 큰 백호를 박기 위한 구멍이 남아 있고 눈은 실눈형태이나 마멸이 심하다.

얼굴의 전체 크기에 비해 코는 크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결실이 있고 입은 마멸에 의해서 뚜렷한 형상이 없다. 그러나 양 볼은 두툼하게 처리하여 얼굴자체가 풍만하고 부드러운 감을 주고 있으며 귀는 크고 길지만 목부분에는 이루지 않고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의 표현이 확인되지 않으며 어깨는 퍼진듯한 형태인데 당당한 체구를 나타내는 바 너비가 68cm나 된다.

법의(法衣)는 양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의(通肩依)인데 다만 표면에 옷주름이 어떠하였는지 확인이 어렵다. 손은 양손 중 왼손은 팔꿈치를 직각으로 꺾어 손을 가슴 부위로 올리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가슴에 붙인 형태이며 오른손은 팔을 쪽 뻗어 허벅지 부근의 법의(法衣)를 가볍게 쥐고 있는 형상이다.

하단부에는 법의의 주름이 약간 퍼진 듯이 표현되면서 군의(裙依)가 선각되어 있는데 이 군의 밑으로는 두발이 특수한 형태로 조각되어 있다. 발은 연화좌(蓮花座)에 올린 형상이지만 양발을 좌우로 벌려 등족립(等足立)이 아닌 이형(異形)이다.

이 불상은 불상이 갖추어야 할 세가지 조건 즉 광배와 대좌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불상조각이다.

## 신현리 미륵불 (新峴里 彌勒佛)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34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위치 :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 ◆수량 : 석불 1구
- ◆시대 : 미상

신현리 미륵불이 위치한 곳은 영인저수지에서 인주면 냉정리로 넘어가는 소로를 따라가면 신현리의 수루너미 마을에 이르는바 마을의 서쪽으로 약 300m의 거리에 신현리의 사지로 불리는 곳에 있다. 이곳은 영인면의 영인산과 인주면의 입암산의 줄기가 맞닿은 곳으로 낮은 구릉이 전개되는 곳이며 사역(寺域)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약 600여평으로 미륵불 1기와 함께 폐허된 민가 2동이 자리하고 있고 이외의 부분은 경작지로 잔존된 상태이다.

미륵불은 주변이 정비되고 아울러 바닥을 시멘트로 곱게 바른 대지에 세워져 있는데 하단에 시멘트의 단이 10cm정도 있으나 본래 미륵불의 하단부는 지하에 묻혀 있는 상태이다.

신현리 미륵불은 두께 25cm정도의 화강암 판석 1매로 조상한 것인데 위에 보관(寶冠)이 있는 바 이는 별석(別石)을 올린 것이다. 이 미륵불은 높이 225cm이고 보관은 35cm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 총 높이는 260cm인데 상당부분이 결실되거나







마모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체적 형태를 보면 이 불상은 후면에 광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모두 결실되고 단지 불신의 주변에 그 흔적만 남기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보관 자체도 불상의 조성시 함께 조성된 것인가에 의문이 있는바 이는 불두(佛頭)에 육계의 표현이 분명히 있는 점이나 보관의 석재와 불상의 석재가 다른점 등을 근거하는 것으로 이로 보면 보관은 후에 올린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우선 보관은 원형의 형태로 갓모양을 하고 있는데 원판위에 별도의 석재를 올렸는바 이는 괴석으로 상단부가 파손된 상태로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이 보관은 불두의 육계 상단과 약 6cm의 간격을 두고 있는바 불두 후면의 파괴된 두광(頭光)위에 올린 형태로서 본래의 불상과는 이격된 형태를 하고 있다.

불상을 보면 불두(佛頭)는 길이 73cm에 너비는 54cm인바 머리는 나발(螺髮)을 소발(素髮)로서 표현한 것과 함께 육계가 적당한 크기로 표현되어 있다. 상호(相好)는 이마를 넓게 표현하고 미간 사이에 백호를 둔 구멍이 작게 파여져 있다. 눈썹은 선각으로 완전히 양옆으로 처져 있고 눈은 가늘지만 뜬 형태로 길게 표현하였다. 코는 얼굴에 비해 작고 입도 다문 작은 형상으로 선각하였는바 볼이 약간 두툼하여 얼굴의 전체 형상은 부드럽고 풍만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귀는 약간 위로 올라간 형상으로 크지는 않은데 목 부분에는 이르지 못하고 오른 쪽 귀는 절반정도 결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목에는 삼도(三道)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거나 하나만 표시되어 있다.

어깨는 가늘고 위축된 감이 있는바 법의(法衣)를 통견(通肩)으로 양 어깨에 걸치고 있으며 가슴부위에서 V자형을 이루게 모으고 있으며 이로서 법의속에 승각이나 매듭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하단의 법의처리는 횡선으로 주름을 표시하고 있어 이채롭다.

양손이 취한 수인(手印)을 보면 먼저 왼손은 가슴앞까지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잡은 형태를 정면으로 향하게 하였고 오른손은 목에 길게 건 엄주를 가슴부위에서 거머쥔 형상으로 조각하고 있다.

## 인취사 석탑 (仁翠寺 石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5호



-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 위치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인취사내
- ◆ 수량 : 석탑 2기
- ◆ 시대 : 고려시대(추정)

인취사는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의 학성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서 조계종 산하의 말사(末寺)이다.

인취사는 18세기까지 인수사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아울러 사찰은 정문을 갖춘 법당에다가 동서 및 북쪽으로 각기 요사에 해당하는 건물 5동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찰이다. 그러나 이 사찰은 초창기의 규모와는 달리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현존하는 사찰은 본래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퇴락한 후의 잔존물이라 생각된다.

인취사내의 석탑은 극락전 앞에 있는 요사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2기가 자리 하고 있는데 이 석탑은 남북을 거리로 하여 약 10m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2기의 석탑은 품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파괴된 것을 최근에 복원 결구(結構)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다. 이들 탑은 사찰의 중심부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 ◆ 석탑 1

이 석탑은 묘사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석탑으로서 화강석으로 조성하였는바 기단부는 단지 지대석만 지니고 있고 탑신부는 3개의 옥개석과 3개의 옥신석 그리고 상륜으로 자연석으로 된 노반형태의 석재 1개만 올려져 있는 것이다.

탑의 전체 높이는 190cm정도인바 이는 대부분 잔존된 탑신부가 차지하는 규모인바 본래 이 석탑은 오층석탑이 아니었나 추정되고 나아가 탑의 규모는 현존의 규모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 ◆ 석탑 2

이 석탑은 묘사체의 바로 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탑은 인근에서 탑의 부재를 모아다 여기에 결구(結構)하여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탑은 하단에 지대석을 두고 탑신으로서 삼층이 있으며 상륜으로 새로 만들어 올린 것을 남기고 있는바 탑의 전체 높이는 165cm이나 상륜 부분을 제외한 탑신부만은 130cm이다. 이 탑도 탑의 전체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기단부는 완전 결실된 것이다.



## 신창 척화비 (新昌 斥和碑)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6호



-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 위치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신창초교 입구)
- ◆ 수량 : 석비 1기
- ◆ 시대 : 조선

이 비(碑)는 신창면 읍내리의 신창초등학교 입구에 세워져 있다. 원래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69년 동리 주민들이 신창초등학교 교정에 옮겨 놓았다가, 1987년에 원 위치인 현재의 자리로 옮긴 것으로 충청남도 내에는 홍성과 이곳에만 있는 것이다. 척화비는 1871년에 대원군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경계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이다.

비석의 높이는 서로 차이가 있어 1.2m에서 1.8m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너비는 대체로 40~45cm이고 두께는 25cm 정도로 서로 비슷하다. 화강암으로 만들어 졌으며 귀부와 이수를 갖추지 않은 통비이다. 1866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한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가 침입해오는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며 그들과 교역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반포 쇄국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였다.

그 뒤 1871년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미군이 강화도에서 조



선군과 싸운뒤 4월 25일 퇴각하자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서울 종로 네거리·경기도 강화·경상도 동래군·함양군·경주·부산진 등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그 비석에는 병인양요 이래의 구호인 「양이침범비전즉화주화매국(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의 12자가 큰 글자로 그 옆에 「제아만년자손 병인작 신미입(戒我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우리들 만대 자손에게 경고하노라 병인년 짓고 신미년에 세운다)이 작은 글자로 각각 새겨져 있다. 그뒤 1882년 임오군란때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되자 이름을 탄 일본공사의 요구로 모두 철거되었다.

신창초등학교 교정 입구에 세워져 있는 척화비도 화강암의 비신과 비좌로 되어 있으며 총고는 147cm이다.

## 김 욱 비 (金 埴 碑)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7호



-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 위치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신창초교 내)
- ◆ 수량 : 석비 1기
- ◆ 규모 : 높이 182cm, 폭 182cm, 폭 71cm, 두께 20.5cm
- ◆ 시대 : 조선시대

이 비(碑)는 조선 현종 원년(元年)에 김욱(金埴)이 대동법(大同法)을 주창 시행한 것을 송덕(頌德)하기 위한 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김욱은 1580년에서 1658년까지 활약한 조선후기의 문신(文臣)으로 자(字)는 백후(伯厚), 호(號)는 잠곡(潛谷)이다. 선조 38년에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충청도(忠淸道)·관찰사(觀察使)·대사성(大司成)·도승지(都承旨)·우의정(右議政)·좌의정(左議政)·영의정(領議政) 등을 거쳤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공물법(貢物法)을 폐지하고 미포(米布)로 대납하는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주장하여 효종 2년(1651)에는 충청도, 8년에는 전라도 연안지방에 이를 실시케 했고 효종 9년에 죽었다.

순치(順治) 17년명(年銘)으로 보아 비석의 건립 연대는 조선 현종 원년인 1660년으로 추정된다.







## 삼도해운판관비 (三道海運判官碑)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8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위치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 ◆수량 : 석비다수
- ◆시대 : 조선시대

이 판관비는 인주면 공세리의 아산 공세곶창이 있었던 옛 창사앞 도로변에 위치한다.

비는 모두 9기인데 그동안 마을 도로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것으로 그중 3기는 현감의 선정비이며 나머지 6기는 해운판관비인데 가장 오래된 것이 순치 6년(1649)이고 최근 것으로는 강희 47년(1708)이다.

이 비는 조선 중종 18년(1523)에 창고 80간을 건축하고 조세를 거두어 보관하였다가 서울로 운송키 위해 이곳에 주재한 삼도(충청, 전라, 경상) 해운판관의 청덕 기념비이다.

비는 전면에는 모두 「삼도해운판관비」라고 각서되어 있으며 주요비석은 다음과 같다.

### 1) 오경선(吳敬善) 선정비(善政碑)

이 비석은 현감(縣監) 오경선의 선정비이다.



오정선은 조선말기 문신(文臣)으로 아산 현감을 지냈는데, 재임시 백성을 사랑하고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이 비는 재임시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다.

비문에 보이는 함풍(咸豐)은 청나라 문종의 연호로, 그 10년은 조선 철종 11년, 서기 1860년이다.

## 2) 이동근(李東根) 선정비(善政碑)

이 비석은 삼도해운판관(三道海運判官)을 지낸 이동근의 선정비이다. 해운판관은 전함사(典艦司)에 소속되어 충청도와 전라도의 조운(漕運) 업무를 담당하던 조선시대의 관원으로 조선초기에 설치되었다. 당시 아산군 공세리에는 곳창(串倉)이 있어서 주변의 세곡(稅穀)을 모았다가 경창(京倉)으로 운반하였는데, 그러한 관계로 이곳에 해운판관선정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석의 건립 연대인 강희(康熙) 32년은 조선 숙종 19년으로 1693에 해당된다.



### 3) 이석희(李錫禧) 선정비(善政碑)

이 비석은 이석희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공세창지(貢稅倉址) 앞에 다른 비석들과 함께 세워져 있다.

이석희는 조선말기의 문신(文臣)으로 아산현감을 지냈는데, 재임시의 애민정신(愛民情神)과 선정을 기리기 위해서 이 비를 세웠다. 비는 갈(碣)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위쪽이 아래쪽 보다 약간 넓게 되어 있다. 비문은 뚜렷하게 남아 있으나 건립 연대는 알 수 없다.

### 4) 이의만(李宜晩) 선정비(善政碑)

이의만은 1650년(효종 1)에서 1736(영조 12)까지 활약한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자(字)는 선응(善應), 호(號)는 농은(農隱).

1691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及第)하여 관직에 나갔다가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있으면서 지방수령(地方守令)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체직되어 영해부사(寧海府使)등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문장이 뛰어나 10여년간 홍문관(弘文館)에서 재직하다가 1722년에 승지(承旨)로 발탁되었고, 이어 충청도·함경도 관찰사를 거쳐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이르렀다. 청렴결백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기로소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시호는 정정(靖貞)이다.

강희(康熙) 47년명(年銘)으로 보아 비석의 건립 연대는 숙종 34년(1708)으로 보인다.

### 5) 이진휴(李震休) 선정비(善政碑)

이진휴는 1657년(효종 8)에서 1710년(숙종 36)까지 활약한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자(字)는 백기(伯起), 호(號)는 성재(省齋).

1677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682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及第)하였으며, 1686년에는 전적(典籍)으로 증시문과(重試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하였다. 1700년에 도승지(道承旨)·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거쳐 1701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송사(訟事)를 편청(偏聽)하였다는 사헌부(司憲府)의 탄



핵으로 일시 파직되었다. 1705년에는 도승지가 되었으며, 그 뒤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안동부사(安東府使)·예조참판(禮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특히 서예에 능통하여 통도사사리탑비(通度寺舍利塔碑)등의 비문(碑文)을 썼다.

비석의 건립 연대는 비문(碑文)에 보이는 강희(康熙) 37년으로 보아 조선 숙종 24년(1698)으로 추정된다.

#### 6) 장차주(張次周) 불망비(不忘碑)

장차주는 조선조에서 활약한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자(字)는 문재(文哉), 본관은 인동(仁同). 1644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을 거쳐 예조좌랑(禮曹左郎)·정언(正言)에 올랐다. 이 후 2년간 관직(官職)을 떠났다가 황해도사·해운판관(海運判官)을 역임하였다.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이 되어 「인조실록(仁祖實錄)」의 편찬(編纂)에 참여하였으며, 경연(經筵)의 검토관(檢討官)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651년에 당직 근무중 병을 얻어 죽었다.

비문(碑文)에 보이는 순치(順治)는 청(淸)나라 세조(世祖)의 연호(年號)로 순치(順治) 6년은 조선 인조 27년(1649)에 해당된다.

#### 7) 한진기(韓震琦) 선정비(善政碑)

삼도해운판관(三道海運判官) 한진기의 선정을 기리는 송덕비(頌德碑)다. 비석은 현재 곳창지(串倉址) 앞에 세워져 있는데, 비좌(碑座)는 알 수 없지만 높이 41cm, 너비 52cm의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문(碑文)에 보이는 순치(順治)는 청나라 세조의 연호로 순치 10년은 조선 효종 4년(1653)에 해당된다.



## 영인 오층석탑 (靈仁 五層石塔)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9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위치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35
- ◆수량 : 석탑 1기
- ◆시대 : 고려시대 추정

영인면 아산리의 향교에서 서쪽으로 약 200m의 거리를 두고 아산리 사지가 있다. 이곳은 구릉지의 남향사면으로 사역(寺域)안에 영인 석조미륵불상과 함께 오층석탑이 말끔하게 정비되어 안치되어 있는 곳이다.

현황을 보면 사지의 범위 중 최남단에 오층탑이 위치하고 있는데 석탑의 유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한편 사지의 중단부에서 동쪽 가장자리에 미륵불이 있는데 이 미륵불과 석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먼저 석탑은 전체의 높이가 430cm로서 중층(重層)의 기단부(基壇部)와 탑신부(塔身部) 그리고 상륜(上輪)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륜은 대부분 결실되어 있다.

기단부는 총 높이가 120cm인데 하층기단(下層基壇)은 낮고 상층기단(上層基壇)은 높은 형태로 시설 하였다. 하층기단은 총 높이 40cm 인데 하단의 지대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우주석과 장주석을 모각한 장대석을 세워 네면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한 매의 갑석(甲石)을 올린 상태이다.

하대(下臺) 갑석은 한쪽 귀퉁이가 파괴되어 있지만 낙수면 형태의 곡선처리가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아울러 탑신받침부를 1단 물딩의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사층기단은 판석으로 이루어진 면석에 탕주(撐柱)만 모각(模刻)한 것과 탕주와 우주(隅柱)를 모각한 것을 우주 탕주를 모각한 것을 장변(長邊)으로 하고 탕주만 모각한 것을 그 사이에 끼워 배치하여 네면의 중석의 면을 우주와 탕주를 표현한 형태로 꾸미고 있다.

상대갑석에는 복련의 연화를 장식한 상태로 중앙부에 옥신석(屋身石)의 탑신 받침부에는 고풍(孤形)과 각형(角形)을 2단으로 조출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갑석은 모서리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으나 정교한 표현을 한 것이다.

탑신부는 오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옥개석(屋蓋石)과 옥신석(屋身石)은 각기 별개의 석재로 만들었고 아울러 각기 1매의 화강석으로 꾸민 것이다.

초층(初層)의 탑신을 보면 옥신석은 1매의 화강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네 귀퉁이의 우주를 모각하였는데 초층 옥신의 경우 문비(門扉)의 형태를 면석 중앙에 조각한 특징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후의 옥신석에 별다른 장식이 없고 단지 우주(隅柱)만 모각(模刻)되어 있는 상태이다.

옥개석은 1층과 2층은 3단의 층급(層級)이 있는데 이후의 3, 4, 5층의 옥개석은 2단의 층급받침이 있어 층급의 숫자가 감소되어 있다. 옥개석의 형태는 대부분 유사한 양식으로 이루어졌는바 낙수면이 어느 정도 경사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마가 전각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전되어 유려한 상태를 나타낸다.

한편 4층의 옥개석에는 네 귀퉁이에 풍택(風擲)을 달았던 구멍이 남아 있으며 오층의 옥개석은 귀퉁이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상륜부는 현재 로반(露盤)과 복발(伏鉢)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이상은 모두 결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 영인석불 (靈仁石佛)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40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위치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 ◆수량 : 석불 1구
- ◆시대 : 고려시대(추정)

이 불상은 얇은 화강판석의 전면에 불상의 형상을 조각한 것으로 상당부분이 인멸되었거나 혹은 훼손으로 후대에 다시 복원한 부분도 적지 않는데 불상의 조상은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상은 아산리의 향교에서 서쪽으로 약 200m의 거리를 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본래 사지가 위치하였던 곳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영인 오층석탑으로 불리는 석탑이 이 보살입상에서 남쪽으로 15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전언에 의하면 이들 석탑이나 불상이 영인산 주변에 있는 동림사지에서 옮겨온 것이라고도 전하나 확인할 수 없다.

불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석탑과 함께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는데 불상 주변은 철책이 둘러져 있고 바닥은 시멘트 벽돌을 깔아 정지한 곳에 불상의 하반신이 땅속에 박힌 형태로 안치되어 있다.

불상은 총 높이가 272cm로서 그리 크지는 않으나 불신(佛身)의 하단부 즉 다리부







분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단지 상단부만 있는 것이다. 불두는 보관(寶冠)을 포함하여 103cm이고 불신은 165cm정도로서 불두가 불신에 비해서 크게 표현되어 있다. 불신의 어깨부분은 72cm의 너비로서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불상은 불두(佛頭)와 불신(佛身)이 떨어져 있던 것을 재결합한 것으로 목부분에 시멘트를 발라 결합하였는바 이로서 목부분은 원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

불두의 형상을 보면 우선 머리는 길이 40cm 크기의 보관을 쓰고 있다. 이 보관은 원통형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관(寶冠)의 형태는 월정사 보살좌상이나 한송사지 보살좌상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 아산리 보살입상의 보관은 다른 보살입상의 보관에 비해서 조각수법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관은 하단에 선각의 윤선을 돌리고 있고 에이스형태의 장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상호는 방형의 형태로 전체적으로는 풍만하고 균형이 잡힌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머리의 보관으로 말미암아 얼굴형태가 약간 왜소한 감이 없지 않은데 이는 보관을 쓴 머리부분을 크게 표현한 때문으로 보인다. 형상을 보면 이마는 얼굴 전체의 균형에 비해서 넓게 표현한 것으로 확인되며 눈썹은 가늘게 선각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눈은 반쯤 감은 형상이나 선으로 길게 처리하면서 눈초리가 약간 치켜진 형상이다. 입은 작고 다문 형상인바 다만 코는 비교적 크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양볼은 약간 아래로 처진 형태에 통통한 상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귀는 얼굴 전체에 비해서 길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깨까지 내리지는 않았으며 목은 결실로 삼도(三道)등 형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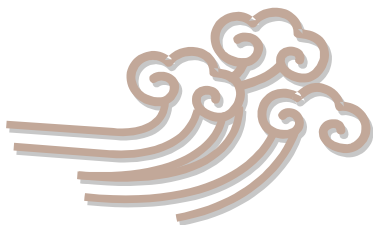
어깨는 당당하나 약간 세장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양어깨에서 팔의 전개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손 중 왼손은 배꼽까지 수평으로 올려 손바닥을 펼치고 그 위에 보주(寶珠)를 두고 있으며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자그만 보주를 쥐면서 가슴위까지 올린 형상을 하고 있다.

의습(依褶)은 통견의(通肩依)로서 가슴부위에 U자형의 곡선을 나타내고 있지만 의문의 표현이 깊지 않고 아울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마멸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현존된 상황으로 미루어 가슴이하의 부분은 선각으로 의문(依紋)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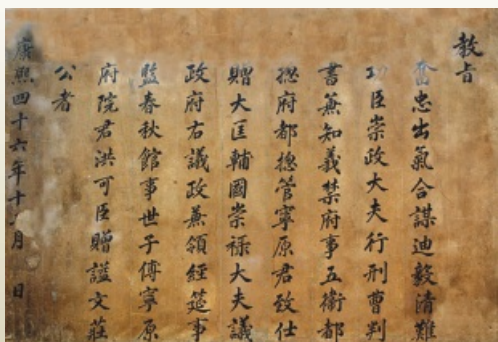
다리 이하의 부분은 지하에 파묻혀 있어 더 이상의 확인은 어려운바 이 불상의 파괴는 청일전쟁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하며 오늘날과 같은 형상의 복구는 해방되던 194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홍가신선생 교지 (洪可臣先生 教旨)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10호



- ◆ 지정년월일 : 1989년 4월 20일
- ◆ 위치 :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 ◆ 수량 : 5매
- ◆ 시대 : 조선시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교지는 총 5종으로, 2종은 홍가신에 대한 교지, 1종은 홍가신의 부인에 대한 교지, 2종은 아들 홍온에게 내려진 교지이다. 각각의 교지의 내용을 보면,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청난공신 1등에 책록된 후 이듬해 영원군에 봉해지면서 내려진 영원 부원군 교지, '문장'이란 시호를 내린 문장공 익호 교지, 홍온의 익령부원군 교지와 증직교지 그리고 부인의 교지이다. 이 중에서 홍가신의 교지인 영원 부원군 교지는 세로 27cm, 가로 70cm이고, 문장공 익호 교지는 세로 105cm, 가로 70cm의 크기이다.

아산의 인산서원과 정퇴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만전집, 만전당만록 등이 전해지며 염치읍 대동리 만전당에서 매년 음력 7월 27일에 제향이 올려지고 있다.



## 창녕성씨종중문서 (昌寧成氏宗中文書)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11호



- ◆지정년월일 : 1989년 4월 20일
- ◆위치 : 아산시 배방면
- ◆수량 : 3매
- ◆시대 : 조선시대

중리 3구 마을 입구에서 마리골 안으로 300m정도를 들어가면 골짜기 안쪽 끝의 성기만씨 집에서 유형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창녕성씨 종중문서가 보존되어 있다. 이 집이 있는 터는 성씨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집터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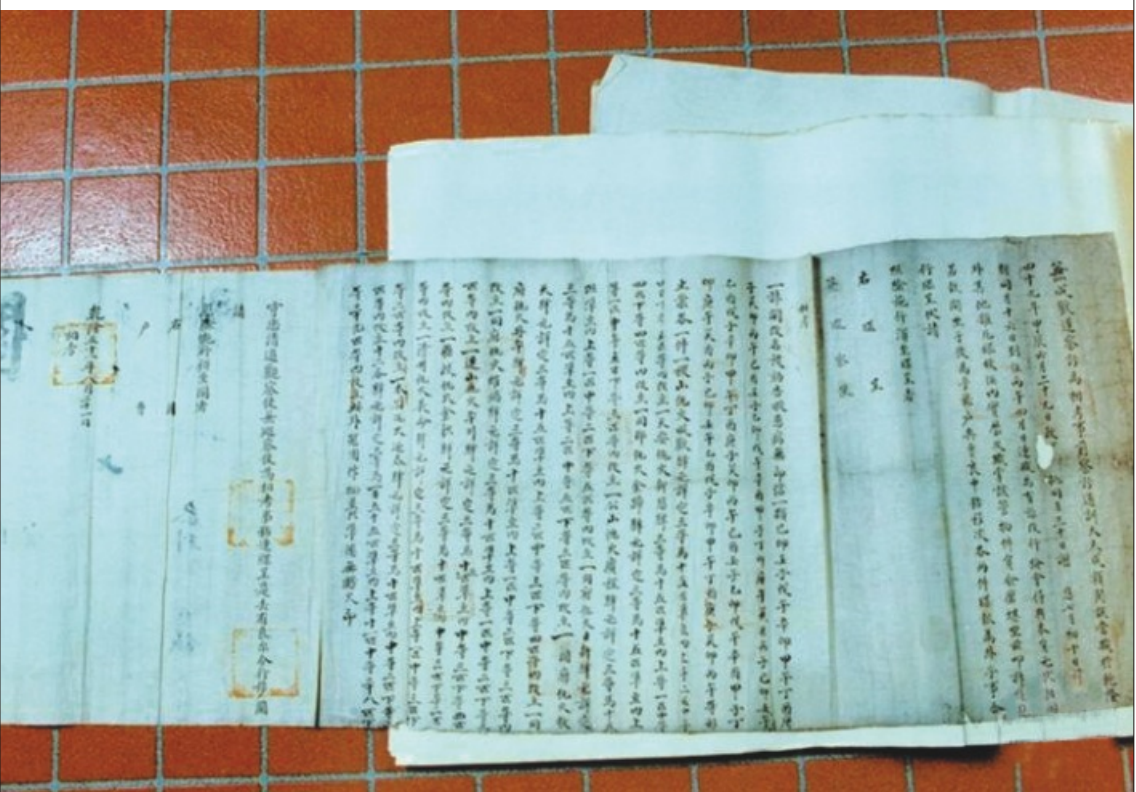
창녕성씨가 이 마을에 자리잡게 되는 과정은 확실히 전해지는 바가 없으나, 조선 건국기에 활약한 성석린(1338~1423)이 가까운 중리 검은배 마을의 맹사성과 이웃하여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 이미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종의 문서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은 다음 3종의 문서다. 1989년 4월 20일에 지정되었다.

- ① 「성영의 찰방 점검문서」 : 조선 정조 11년(1787)에 작성된 성영의 찰방 점검문서로, 가로 122cm 세로 40cm의 크기이다.
- ② 「성한익의 호구단자」 : 숙종 40년(1714)에 만들어졌다. 가로 61cm, 세로 48cm의 크기이다.



- ③ 「성취성이 만든 서적」 : 광해군 10년(1618)에 성취성이 만든 서적 등이 남아 있다. 서책의 크기는 가로 92cm, 세로 40cm이다.



## 봉곡사 대웅전 및 고방 (鳳谷寺 大雄殿 및 庫房)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3호



- ◆ 지정년월일 : 1993년 7월 20일
- ◆ 위치 :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 ◆ 수량 : 2동
- ◆ 시대 : 조선시대

松岳面(송악면)의 南壇(남단), 봉수산(鳳首山)의 동북계곡에 위치한 고찰(古刹)이다. 울창한 송림으로 에워 싸인 진입로와 배산(背山)이 청정도장(淸淨道場)의 면모를 돋보이게 한다. 조선대의 승람(勝覽)과 지리지(地理誌)에는 '석암사(石庵寺)'라 했으며 1929년간 환여승람(環輿勝覽)에 '봉곡사(鳳谷寺)'라 한 것으로 보아 사명(寺名)이 바뀐 듯하다.

계곡을 앞에 두고 산사면(山斜面)을 깎아 800여평의 사역(寺域)을 조성하였는데 대웅전(大雄殿)과 향각전(香閣殿)이 마당가의 석단 위에 나란히 동향(東向)해 있고 그 북쪽으로 'ㄱ'자형의 거대한 요사(寮舍) 건물이 있다. 요사 뒤편에 지대를 낮추어 측간과 허드레 광이 마련되고 사역 입구에서 남쪽 둔덕위에 삼성각(三聖閣)이 있다.

향각전과 삼성각은 근년에 세워진 반면 대웅전과 요사는 고풍스러운 목조건물의 구조를 간직하고 있어 1891년 서봉화상(瑞鳳和尚)에 의한 중수기록과 걸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웅전(大雄殿) (39.05㎡, 11.83평)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맞배지붕이며 높은 2단 석축(石築)위에 세워졌다. 정면 3칸에 석살로 짠 이분합(二分閤)을 달고 양측에 세살문짝을 두었다. 우물마루 설치한 어간배면(御間背面)에 붙여 불단을 놓고 양래간(兩來間)에 신중단(神衆壇)과 영단(影壇)이 있다.

자연석 기단(基壇)에 덩벙주초(柱礎)를 놓고 출목(出目) 하나를 둔 2익공(翼工) 주심포계의 공포를 구성하고 내부에는 출목없이 초각(草刻)된 보아지로 대들보를 받고 있다.

창방(昌枋)과 주심도리(柱心道里) 장혀 사이에는 화반이 간살마다 3구(軀)씩 배치되었고 전후 평주(平柱)위에 걸쳐진 대량(大梁)위에는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5량 가구를 구성했다. 종량에는 화려한 파연대공(波蓮臺工)이 있고 측면 중앙기둥은 대량 밑을 받치고 있다.

요사(寮舍)채(314㎡, 95.15평)는 대웅전 앞의 넓은 마당 북편(北便)을 막아 세워진 요사(寮舍) 대중방과 부엌 뒤편으로 내정(안마당)을 둘러싸은 방과 대청, 광, 2층 창





고 등이 연결되어 완전한 'ㄱ자형' 평면을 이루었다.

대중방 부분의 본채는 전후퇴(前後退)를 둔 2고주 7량가 구조의 전면 6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이다. 가운데 3칸과 측면2칸통의 넓은 대중방 전후로 반칸 툇마루가 연결되고 동쪽 2칸은 큰 부엌이 서쪽에는 작은 방 2칸이 이어졌다. 전면의 툇마루는 기단(基壇) 경사에 따라 각 칸마다 10cm 내외의 단차를 두었고 부엌부분을 제외한 방과 마루 전체의 반자 위를 더그매 광으로 활용한다. 동단(東端) 부엌 한 칸은 맞배지붕 박공 아래에 눈섭지붕을 설치해 넓힌 듯하며 배면주선(背面柱線) 밖으로 1칸을 이 어내서 통행로(중문과 이어지는)로 사용한다. 부엌의 북편으로 공양주방, 2칸 방, 욕실, 주지스님 방 2칸, 옷방이 이어지구 ㄱ자로 꺾이어 1칸 대청, 방 2칸, 문간(후정으로 나가는) 등이 1고주 5량 가구로 이어져 구성되었다. 안마당을 향한 전퇴부분에서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의 2칸까지만 툇마루를 놓았다.

안마당 서편을 둘러친 부분에는 남쪽으로부터 대문간, 1칸 방, 2칸 광이 있고 별채같이 구성된 2층광이 3칸 더 이어졌다. 전체의 기단은 자연석 기단에 덩벙주초를 놓고 본채(대중방) 부분은 둥근기둥이다.



안마당을 둘러싸은 익사(翼舍)부분의 외면주(外面柱)는 둥근기둥, 내부는 각주(角柱)이다. 대충방 전면 열기둥에는 두개의 양서가 있는 2익공계(翼工系) 초가지와 퇴보뿔목도 초각(初刻)되고 각 간마다 화반이 배치(配置)되었다.

고방은 두꺼운층 귀틀과 마루가 설치된 상하의 외벽이 모두 판벽(板壁)과 판문(板門)으로 구성되고 5량 맞배지붕인데 박공 밑에 풍판(風板)은 없다. 이 요사(寮舍)채의 특성은 충청지방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제(帝)자형 평면을 갖추고 2층 고루(庫樓)가 있고 큰방채의 상부에 더그매 목장공간(牧藏空間)을 갖춘 것 등 재래의 사찰요사(寺刹 寮舍)채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이다.

## 외암선생문집판각 (巍巖先生文集板刻)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33호



- ◆ 지정년월일 : 1994년 11월 4일
- ◆ 위치 :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 ◆ 수량 : 307매
- ◆ 시대 : 조선시대

아산시 송악면과 천안시 광덕면, 공주시 유구면에 걸쳐 넓게 펼쳐진 광덕산의 북쪽 골짜기 강당골에 위치해 있다. 이웃한 외암리 마을에 일가를 이룬 예안 이씨의 선조, 외암 이간 선생이 관직을 벗고 향리에 내려와 후학을 강설하기 위해 지은 관선제가 중심이 되어 후일에 건물을 증설하였다.

관선제는 1707년에 외암선생이 동향인 윤, 이, 류씨 등 세문중의 힘을 합해 건립하고 유학을 강론하던 소규모 서원으로 '외암서사'라고도 하였는데 이 강당의 이름을 따 지명에 까지 유래되게 되었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위기에 놓인 관선제에 이를 모면키 위해 객실에 불상을 안치하고 승려를 두어 불사를 행함에 따라 "강당사"라 불렀다.

외암이간 선생 문집 판각은 조선영조 때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외암 이간(李柬 1677~1727)의 문집을 새겨놓은 목판각으로, 이간이 건립한 강당사 장판각 안에 307매가 보관되어 있다.





판각이 있는 강당사의 정문에 걸린 현판에는 '문천사(文泉祠)'라 쓰여있다. 이것은 외암 이간의 문중인 예안이씨와, 윤씨문중에서 합의하여 쓴 것이라 한다.



## 형 제 송 (兄弟松)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43호



-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 위치 :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 ◆ 수량 : 2주(해송)
- ◆ 시대 : 조선시대 추정

아산만이 내려다 보이는 해암리 뒷산위에 있는 400여년 된 해송으로 높이 16m, 둘레 3.5m, 수관 19m로 나뭇가지가 수평으로 길게 뻗어 있고 줄기가 꺾이하게 꼬여있는 거목이다.

임진왜란때 마을에 살던 장사 청년형제가 아산만에 쳐들어온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여 마을주민들이 무덤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묘지에서 형제의 혼이 소나무로 다시 태어나 마을을 지킨다는 전설이 있다.

## 신 창 학 성 (新昌鶴城)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244호



- ◆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 ◆ 위치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 ◆ 수량 1곽
- ◆ 시대 : 미상

온양에서 21번 국도를 타고 약 8km쯤 가다보면 신창면 읍내리 마을에 닿게 된다. 이 읍내리 마을의 서쪽에 솟아 있는 표고 183m의 산이 학성산인데, 산성은 바로 이 학성산의 정상부에서 중복(中腹)에 걸쳐 삼태기형으로 축조되어 있다.

신창초등학교에서 학성산에 오르다 보면 성의 남벽에 닿게 되는데, 남벽은 성벽의 일부가 붕괴되어 있기는 하나 그런대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성벽은 높이가 7.5m에 달하는 편축식 산성으로 20cm×40cm 정도 되는 치석한 돌을 이용하여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좀 더 서쪽으로 나가면 성벽을 협축으로 축성한 곳도 있는데, 축성 방법은 마찬가지다. 이 협축부의 규모는 내고(內高) 1.5m 정도, 외고(外高)는 4m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성벽 상단의 폭은 3m에 달한다.

남벽과 이어지는 서벽의 남쪽 부분도 협축으로 축성하였는데, 이곳은 지세도 그다지 험하지 않은 데다가 성벽도 외고 2m 정도만 남아있다. 그러나, 서벽은 남벽쪽의



일부만 협축으로 축성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편축식으로 축성하였는데, 성벽의 대부분이 허물어져 동벽이나 남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정연한 축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성벽이 붕괴된 데다가 성내의 토사가 성벽을 덮고 있어 토성처럼 보이게까지 한다.

북벽은 남북으로 달리는 능선을 가로질러서 축성한 까닭에 남벽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지형이 험하지 않다. 또한 능선을 가로질러서 축성하였기 때문에 성벽의 길이도 매우 짧다. 능선을 가로지른 다음 성벽은 다시 능선에 평행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지형에 맞추어 동쪽으로 꺾어져 다시 북벽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곳의 성벽도 매우 정연하게 원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치석한 돌을 이용하여 4m 정도의 높이로 축성하고 있다.

북벽과 이어지는 동벽은 능선과 평행하게 남쪽으로 달려오다가 지형에 따라 축성하느라 동쪽으로 늘어지면서 산의 중턱에까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산성의 전체적인 평면은 주먹 쥔 손에서 검지손가락 하나를 펴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형태인데, 정상부에서 산의 중턱으로 이어지는 북벽은 매우 정연한 축석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곳도 동벽, 남벽과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모양의 치석한 돌을 이용하여 축성하였는데, 높이가 4.5m에 달한다. 그러나, 성벽은 동벽과 이어지면서 축석의 형태가 사라진다. 따라서 동벽 북쪽은 서벽과 마찬가지로 토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원래부터 이곳이 토성이라기 보다는 축석에 사용된 돌들이 붕괴된 데다가 성내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믿어진다. 동벽의 중간 쯤 되는 부분에서는 다시 정연한 축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곳이 성 전체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성벽이다. 여기에서 보면 성벽은 20-30cm×40-50cm에 길이가 50cm정도 되는 치석한 돌을 이용하여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축성하고 있다. 치석한 돌을 이용하여 바른층 쌓기의 방법으로 20여 단을 쌓았는데, 그 높이만도 6m에 이른다.

성내에서 발견되는 부대시설로는 문지(門址)와 건물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문지로는 가장 뚜렷한 것이 서문지이다. 문지 주변의 성벽이 붕괴되어 있어 문지의 정



확한 모습은 살펴보기 어려우나, 문지의 폭은 약 4m에 이른다. 이곳은 경사가 가장 완만한 곳으로 문지 주변에는 협축으로 축성하였는데, 외고 약 3m, 내고 약 1m에 성벽 상단의 폭은 3m 정도다. 이외에 북문지도 발견된다. 현재 북문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성벽의 붕괴가 심하여 서문지처럼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형적인 여건상 정상부에서 산의 중복(中腹)으로 이어지는 북쪽 성벽에도 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와는 달리 건물지로 여겨지는 넓은 태지(台地)는 성내 곳곳에서 발견된다. 남서벽쪽에도 15m정도의 회랑도가 돌아가고 있어서 건물지로 추정되며, 그 밖에 산의 정상부에 행당되는 북서쪽은 거의가 다 평탄한 태지로 되어 있고, 전망도 매우 좋아 이곳에도 건물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동북우의 회랑도에는 직경 10m, 깊이 1m 규모의 원형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이러한 구덩이는 고대 산성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역시 성곽과 관련있는





시설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북쪽 정상부 태지에는 연못으로 추정되는 시설도 있다. 지금은 잡풀이 우거져 있어 지표조사 만으로는 무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이곳에는 저수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성내에서는 많은 유물이 발견된다. 이들은 와편과 토기편들인데, 와편에는 세선(細線)의 선조문(線條文), 격자문(格子門) 등도 있지만 그 중에는 선조문을 재연마 한 것도 있어 주목된다. 토기편들은 작은 파편이라서 기형이라든가 크기 등은 짐작하기 어려운데, 승석문이 시문되어 있는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같은 명백한 삼국시대 토기편도 있어서 매우 주목을 끈다. 이학성산성이 위치해 있는 읍내리 일대는 백제시대의 굴직현(屈直縣)이자 조선시대에는 신창현(新昌縣)지역으로 현치소(縣治所)가 있었던 지역인데,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도 매우 다양하여 이 산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기능하였음을 알게 해 준다.



## 온양 어의정 (溫陽 御醫井)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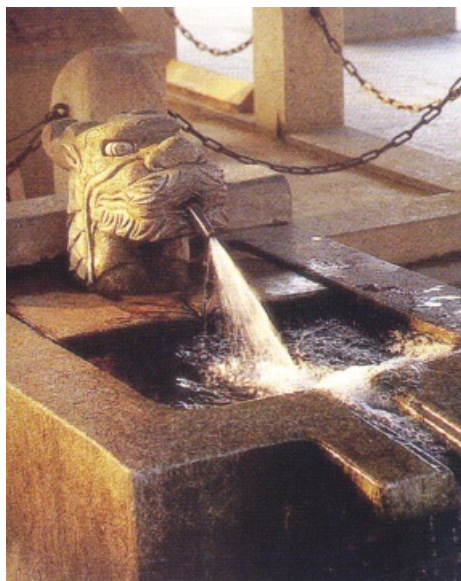
- ◆지정년월일 : 1989년 12월 29일
- ◆위치 : 구 온양시 온천동
- ◆수량 : 1곽
- ◆시대 : 조선시대 추정

어의정은 세종대왕이 안질 치료차 온양에 행차하여 치료했다는 우물로 「어의정」, 「어천」, 「어정수」라 불리는 우물이다.

이 우물은 전언등의 사실로 미루어 온양의 인문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로 판단되어 1989년 7월에 공주시범대학 박물관에서 유적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우물의 기본적 시설은 변형되어 있으나 본래의 우물에 설치하였던 상부 구조의 석조물은 주변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 석재를 모아 재구성하였다.

복원된 우물 시설은 사각형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화강석을 다듬어 너비 107cm, 길이 120cm, 높이 50cm 규모의 우물 상부 시설로 판단된다. 이 시설은 규모나 설치수법에 있어서 일반 우물보다는 특별히 크고 독특한 것으로 보아지며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우물의 석재에 「어천」이란 명문이 있다고 하는바, 비록 「어천」이란 명문은 확인되지 않지만 우물의 규모 및 형태로 미루어 「어의정」 혹은 「어천」이란 이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양 어의정」



## 인취사 삼존불상 (仁翠寺 三尊佛像)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14호



- ◆지정년월일 : 2005년 10월 31일
- ◆위치 : 아산시 신창면 인취사
- ◆수량 : 3구
- ◆시대 : 미상

인취사는 조선시대 중기까지 규모를 갖춘 형태로 잔존되어 오던 사찰임을 지리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찰로서 파악되는데 인취사 자체가 간직하고 있는 사적기는 거의 없고 전언으로 신라 법흥왕대에 창건된 것이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고 사찰내에 석탑 1기가 남아 있는데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며 아울러 경내의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기와편 등에서도 석탑과 동일한 시기를 추정하는 년대관(年代觀)을 제시할 수가 있어 적어도 이 사찰은 고려시대의 후반부에는 형체를 유지하고 있던 사찰이다.

인취사의 사찰 건물 중 극락전(極樂殿)은 정면 삼칸 측면 삼칸의 건물로서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 극락전에 안치된 불상은 삼존불로서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을 두고 있는바 이들은 고려말기나 혹은 조선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불상이다.

불상은 극락전의 내부 목제(木製) 불단(佛臺)의 중앙에 안치되어 있는데 본존불(本





尊佛)은 수인(手印)이 선정인(禪定印)인 것으로 미루어 석가여래이고 좌협시보살은 관음보살, 그리고 우협시보살은 지장보살인바 이들 불상은 점판암인 석불에 표면을 도금한 것이다.

본존불은 높이 60cm의 좌불로서 인계는 선정인을 취하고 있는바 길상좌(吉狀坐)를 하고 있다. 형상을 보면 불두(佛頭)는 반원형의 육계를 올리고 눈은 반쯤 감은 형상인데 볼이 두툼하여 풍만한 감을 주고 있다. 목의 삼도(三道)는 희미하게 나타나며 법의는 통견인데 한 자락은 뒤로 다른 한 자락은 아래로 늘어뜨려 처리한 것이다. 배부분은 군의의 매듭이 보인다.

좌측의 협시보살은 관음보살로서 전체의 높이가 53cm인데 보관의 전면중앙에 화불을 두고 있으며 통견의 법의 등 전반적인 형태는 본존불과 대동소이하다. 수인은 오른손을 왼손에 포개어 손등을 밖으로 보이게 하는 점이나 하단의 옷주름이 중첩된 것은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우협시보살인 지장보살은 선정인의 수인에 보주를 엮고 있고 머리에는 두건이 씌워진 것으로 이 두건의 자락이 어깨까지 내려오며 이 외는 본존불 혹은 관음보살과 같은 형상이다.





# 전통사찰









## 봉곡사 (鳳谷寺)

### 전통사찰 제51호



- ◆지정년월일 : 1988년 6월 18일
- ◆위치 :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 ◆시대 : 조선

봉곡사는 아산에서 공주시 유구방면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약 2.5km 나아가면 송악저수지의 남단부에 이르는데, 여기서 유곡리 방향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약 2km정도 들어가면 나타난다.

봉곡사의 사명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고 본래의 사명은 석암사(石巖寺)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석암사재송악산(石菴寺在松嶽山)」이라 기록하고 있다. 「조선환여승람」에서 이 석암사가 봉곡사로 개명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어, 이 시기에 이르면 석암사가 봉곡사로 사찰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봉곡사는 봉수산에서 북으로 흐르는 지맥 중 유곡리 방향으로 약간 동으로 꺾인 산자락의 계곡내에 위치하고 있다. 사지가 입지한 지역은 동향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을 정지하고 조성된 것으로 약 1,500평이다. 사찰의 건물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대지 위에 향각전과 대웅전, 그리고 칠성각의 불사(佛舍) 외에 약



30여 칸의 대규모 요사채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가람의 배치상황을 보면 서단의 경사면 윗부분에 한 단의 축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높은 기단을 조성한 후 향각전과 대웅전을 남북으로 나란히 건축하고 있다. 향각전과 대웅전의 전면의 중앙에 계단을 설치하여 통로로 활용하기도 한다. 대웅전의 전면 좌측인 북쪽 방향에 요사채가 그리고 향각전의 남쪽으로 약 25m의 거리를 둔 지역에 돌출형식의 대를 마련하고 칠석각을 두고 있다.

대웅전의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에 겹처마로 꾸민 건물이다. 처마의 구성은 주포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연 초석 위에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원형의 기둥을 세우고 주심포를 엮었다. 좌우에 넓은 방풍벽을 쳤고 정면의 3칸에 2분합의 문을 그리고 측면의 전·퇴간에 쪽문을 단 형태이다. 건물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석가여래좌상을 안치하고 있다.

이 석가여래좌상은 높이 약 1m 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불신에 비해서 얼굴을 크게 표현한바 머리에 나발(螺髮)이 있고 약간 숙인 얼굴은 엄숙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양 미간의 백호가 이채롭다. 법의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으로 내리고 가슴에 띠가 표현되어 있다.

한편 불상의 뒤편에는 불화가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불화는 불상 뒤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와 그 좌우에 남아 있는 신장정(神將淸)과 지장정(地藏淸)이 있는데, 이중 영산회상도와 지장전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영산회상도는 길이 190cm, 너비 171cm이고 지장정은 길이 189cm에 너비는 128cm으로 '동치8년정묘3월봉화산 봉곡사 봉안(同治八年丁卯三月奉華山 鳳谷寺 奉安)'이라는 명문이 있어 이들의 제작이 1867년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수보살은 요사의 남쪽방에 안치되어 있는데, 목불(木佛)에 도금한 것으로 단아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조선 초기에 조성된 불상이다. 결가부좌의 자세에 중품인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 화염보관(火焰寶冠)을 쓰고 있으며 얼굴의 이목구비는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목에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고 통견의 법의는 가슴에 상의의 끈이 나타나 있다. 이 문수보살은 복장물은 불경과 오색실등이 있는데 불경은



1448년에 간행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포함하여 관음보살예문(觀音菩薩禮文) 등 8권이다.

향각전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로서 우진각의 지붕을 하고 홀치마로 꾸며진 것인데 이 건물은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정면의 경우 벽면에 회벽이 있는 것이며 칠성각도 정면 3칸 측면 2칸의 최근에 조영된 건물이다. 한편 요사의 건물은 ㄱ자 형의 대형건물로서 서남방의 3칸의 전후면으로 마루를 설치한 것인데 최근에 생활을 위해 조영한 건물이나 생활에 편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 인취사 (仁翠寺)

### 전통사찰 제52호



- ◆ 지정년월일 : 1988년 6월 18일
- ◆ 위치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 ◆ 면적 : 82,746㎡ (3동)
- ◆ 시대 : 고려시대

인취사는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의 학성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이다. 이 사찰에 이르는 방법은 아산에서 예산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창면 읍내리에서 북으로 개설된 소로를 따라 약 1.2km정도 들어가면 학성산의 기슭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읍내 3리로서 학성산의 동북쪽 사면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사찰은 산의 표고 약 100m 정도의 중턱부에 위치하고 있다.

인취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의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인취사 재현북오리 법당삼간 정문삼간 동실방삼간 사실방삼간 북실래방사간(咽嘴寺 在縣北五里 法堂三間 正門三間 東室房三間 四室房三間 北室來房四間)'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인취사는 「여지도서」가 작성되던 18세기에는 인수사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아울러 사찰은 정문, 법당과 요사 등 건물 5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호서읍지」에는 '인취사 재현북오리 본이소암 거승선소 잔패이구(咽嘴寺 在縣北五里 本以小菴 居僧鮮小 殘敗已久)'라는 내용을 전한





다. 「호서읍지」가 작성된 19세기말에 인취사는 작은 암자로 인식되어 있을 만큼 퇴락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지리지 등을 통해 보면, 인취사는 조선시대 중기까지 규모를 갖춘 형태로 잔존되어 왔지만, 이후 쇠락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요약된다.

인취사는 학성산의 동향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가람의 배치가 동서를 축으로 하여 자리하고 있다. 우선 서단부 즉 경사의 상단부에 극락전이 자리하고 있고 동쪽에 요사채가 자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웅전 격인 극락전은 정면 삼칸, 측면 삼칸의 건물로서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 건물이다. 극락전은 부분적으로 최근에 보수한 흔적을 보이고 있지만, 초석은 자연초석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원형의 것이며 익공계통으로 좌우에는 방풍벽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극락전에 안치된 불상은 삼존불로서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을 두고 있는데 이들 불상의 후면은 탕화가 삼불의 후면만 안치된 상태이다.

요사채는 전통의 한옥 형식으로 정면 3칸에 측면 3칸이나 정면의 2칸은 마루로 시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3개의 구획으로 방을 마련한 형식이다.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은 정면을 80cm내의 높이의 축대 위에 자연초석과 원형기둥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바 상당부분이 퇴락한 상태이다. 한편 북측에 자리하고 있는 2동의 요사채 건물이나 종각의 건물은 최근에 조영된 것이다.

한편 극락전의 좌측정면에는 우물이 있는데 극락전 축대 속에 「역일규정(曆日窺井)」이란 명문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우물자체가 일정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언에 의하면 이 우물은 조선시대의 명승인 휴정(休靜) 서산대사(西山大師)가 적은 것이라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가람의 구성을 보다 확대해 보면 극락전 앞에 있는 요사채를 중심으로 그 북쪽인 좌측에는 축대를 마련한 위에 2동의 요사채가 있다. 요사채의 남쪽으로는 삼층의 석탑 2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석탑은 남북을 거리로 하여 약 10m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중 남쪽에 있는 석탑은 지방문화재 자료 제 235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최근에 복원 결구(結構)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세심사 (洗心寺)

### 전통사찰 제61호



- ◆ 지정년월일 : 1988년 9월 20일
- ◆ 위치 :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 ◆ 면적 : 7,858㎡ (5동)
- ◆ 시대 : 고려시대(추정)

세심사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아산군의 지리를 기술한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서에 그 내용을 적고 있어 이 사찰이 비교적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사찰의 기록 자체는 확인되고 있지만 사찰의 연혁이나 규모 등은 전하지 않는다.

사찰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혹은 「여지도서」에 모두 세심사가 아닌 신심사(神心寺)라 적고 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사찰은 본래 신심사로 존재하였지만 최근에 세심사로 개칭된 것으로 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동림산 재현칠리 동림사 신심사 축봉사 보림사 현암사구동림산(桐林山 在縣七里 桐林寺 神心寺 縮鳳寺 寶林寺 縣巖寺俱桐林山)'라고 하여, 세심사는 신심사로 불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찰내의 남아 있는 석탑이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양식을 보이고 있고, 사찰의 주변에는 고려시대로 편년할 수 있는 기와편 등이 보이고 있어, 세심사는 고





려시대부터 번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심사는 영인산의 남쪽 사면의 중간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남향의 사면에 3개의 단을 이룬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가람배치는中间的 축대로 이루어진 대지 위에 동쪽으로 치우쳐서 대웅전이 자리한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초 등은 다듬은 화강석을 사용하였고 겹처마를 하고 있는 다포 계통의 건물이다. 건물의 정면 3칸에 사분합의 문을 시설하였을 뿐이며 내부는 우물마루를 하고 불전을 안치한 형식이다.

대웅전의 좌측에는 범종루가 있고, 대웅전의 정면 남쪽에 석탑 1기가 위치하고,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 대지의 서쪽으로는 요사채 및 창고 등의 부수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웅전의 서북쪽에 영산전이 있다. 영산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서 익공계통으로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데 이 영산전이 사찰내의 불사(佛舍)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조성된 최근의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산전의 동쪽인 좌측에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영산전 앞의 계단에 원당형(圓堂形의 부도(屠浮) 2기가 있다.



## 오 봉 암 (五峰庵)

### 전통사찰 제76호



- ◆ 지정년월일 : 1995년 7월 25일
- ◆ 위치 : 구 온양시 장촌동 산 50
- ◆ 면적 : 57,339㎡(3동)
- ◆ 시대 : 고려

오봉암은 설화산의 북쪽 사면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찰은 본래 오봉사로 불리웠던 사찰로 전한다. 오봉암이란 사명은 설화산이 다섯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이로서 연유한 것으로 현재 사찰과 관련하여 연혁을 남긴 사적기와 같은 형태는 발견되지 않는다.

사찰은 설화산의 북쪽에서 흘러내리면서 약간 서쪽으로 흐르는 구룡의 동향사면에 자리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사찰의 유구는 대웅전 1동과 대웅전 전면의 민가 1동이 전부이다. 대웅전의 전면에는 비교적 넓은 공지가 있는데 이로 보면 본래 사찰의 규모는 현존하는 규모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건물로서 우진각 지붕에 홑처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 새로 조성한 것이다. 건물은 북으로 흐른 대지를 정지하고 여기에 두단의 축대를 마련한 후 축조한 것인데 정면의 3칸에 이분합의 문을 달고 불당안은 마루를 시설한 후 불상을 안치한 익공식으로 꾸민 건물이다.



이외 사찰의 부속시설로서 현대식으로 꾸며진 요사체가 있고, 이외 민가의 건물이 있기도 한데 대웅전의 전면에 자리하고 있는 3층의 석탑은 고려시대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사찰 내에서는 각종의 기와 편이 수습되고 있다. 이들 기와편은 흑회색에 소성도가 높은 것들로 배면에 각종 문양을 시문한 것인데 문양 중 파도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이로 보면 이들 기와편은 조선시대로 편년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용담사 (龍潭寺)

### 전통사찰 제82호



- ◆ 지정년월일 : 2004년 8월 16일
- ◆ 위치 :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 ◆ 면적 : 8,827㎡
- ◆ 시대 : 고려시대(추정)

용담사는 아산시에서 공주시의 유구읍과 통하는 도로를 따라 약 1km정도 가면 도로의 우측에 남아 있다. 용담사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1940년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경내에 남아 있는 연혁과 관련된 비석이 남아 있어 사역에 대해 알 수 있다.

비문에는 '용담사비명술중춘십오일입 산명천마산 사명용담사야 신라 애장왕 삼십 육년사월 원효대사초창 고려광종삼십칠년 혜명조사중창 금일천삼백여년병화소진 석불일위 계룡산청산문인권용녕일신창(龍潭寺碑丙戌仲春十五日立 山名天馬山 寺名龍潭寺也 新羅 哀莊王 三十六年四月 元曉大師初創 高麗光宗三十七年 慧命祖師重創 今一千三百餘年兵火燒盡 石佛一位 鷄龍山青山文人權龍寧一新創)'이라고 전하고 있다. 비문은 명술년인 최근에 세워진 것이지만, '용담사'라는 사명이 이미 신라시대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적고 있다. 물론 신라 애장왕대 원효대사라는 기록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 사찰의 초창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이후 고려 광종기의 중창을 거쳐 사찰은 비교적 규모 있는 것으로 잔존되어 왔지만 병란으로 말미암아 사찰이 전부 불에타서 없어지고 단지 불상 한 구만 잔존되어 왔었는데 권씨 등에 의해 새로이 사찰이 조성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사찰 내에 고려시대 양식인 석조여래입상이 있다. 용담사 주변으로 많은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는데 기와편은 고식의 것이 있어 주목된다. 수습된 기와편을 보면 종류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태토는 비교적 거친 것과 일부는 정선된 것도 있고, 거친 태토를 사용한 기와는 회색의 색조에 투박한 것으로 다양한 조합문을 배면에 시문하고 있다. 그러나 태토가 고운 것 중 일부는 회색의 색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정교한 형태가 있는데 이들 기와편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어 고식의 것임을 알게 한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                |           |                  |
|----------------|-----------|------------------|
| 문화재대관          | 1991      | 한국문화재보호협회        |
| 문화유적총람         | 1997      | 문화재관리국           |
|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     | 1998      | 문화재관리국           |
| 현충사 연혁지        | 1975      | 문화공보부            |
| 문화재 해설         | 1990      | 충청남도             |
| 문화유적 총람        | 1991      | 충청남도             |
| 문화재 대관         | 1996      | 충청남도             |
| 충남도문화재수리보고서 목록 | 1998      | 충청남도             |
| 충남의 향교         | 1999      | 충청남도             |
| 충청남도지정문화재 해설집  | 2001      | 충청남도             |
| 아산군지           | 1983      | 아산군              |
| 온양시지           | 1989      | 온양시              |
| 아산의 문화유적       | 1993      | 충청남도, 아산군, 공주대학교 |
| 맹사성 전기         | 1999      | 온양문화원            |
| 김육전기           | 2000      | 온양문화원            |
| 온양아산의 민속       | 1992~1997 | 온양문화원            |
| 내고장 전통가꾸기      | 1993      | 아산군              |
| 온양아산 마을사       | 2000~2003 | 온양문화원            |
| 온양아산 문화자료      | 2004      | 온양문화원            |
| 온양아산 구비문학      | 2005      | 온양문화원            |
| 온양아산 향토유적 조사서  | 2006      | 온양문화원            |

## 운양·아산의 문화재



2006년 12월 22일 인쇄

2006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 온 양 문 화 원

발행인 : 원 장 김 시 겹

편집인 : 박 노 을

감 수 : 운양아산향토사연구소

인 쇄 : 도서출판 한 국 문 화  
(☎ 573-5977)



9 788986 007541

ISBN 978-89-86007-54-1

〈비매품〉